

'A SEVENTH MAN'  
 BY JUNG-DOO  
 HOFESH SHECHTER  
 COMPANY FROM THE UK  
 'POLITICAL MOTHER'  
 'DU PRINTEMPS'  
 'LE SACRE  
 'TUNE' - KOREAN  
 'TRADITIONAL &  
 CONTEMPORARY'  
 DANCE PROJECT  
 'BY SEO JAE-HYUNG &  
 HAN ARUM  
 'THE MARY  
 OF  
 'YANVA ETOMU,  
 'ANNA  
 'GRABSKY  
 'THEATRE FROM PRAGUE'  
 'LEAVING'  
 'VAACLAV HAVEL & ARCHA  
 'WUPPERTAL  
 'PINA BAUSCH  
 'CAFE MULLER' &  
 'THE SACRE  
 'DU PRINTEMPS'  
 'TANZTHEATER



'11 AND 12'  
 'CHRISTIAN  
 'TETZLAFF PLAYS  
 'J.S. BACH 6  
 'SONATAS &  
 'PARTITAS'  
 'EMERSON  
 'STRING  
 'QUARTET  
 'AKADEMIE FÜR  
 'ALTE MUSIK  
 'BERLIN  
 '(FEATURING  
 'SOPRANO  
 'YERE (SUH)  
 'ALEXANDRE  
 'THARAUD &  
 'JEAN-GUIHEN  
 'QUEYRAS  
 'WAYNE  
 'SHORTER  
 'QUARTET



'DIANNE  
 'REEVES  
 'PAT METHENY  
 'THE ORCHESTRON  
 'MAESTROS  
 'IN SEARCH OF BETHOVEN'  
 'IN SEARCH OF MOZART'  
 'DIRECTED BY  
 'PHIL  
 'GRABSKY  
 'SWAN LAKE'  
 'BOURNES'  
 'METHENY



LG아트센터 10주년  
 기획공연 시즌

**TANZTHEATER WUPPERTAL**  
**PINA BAUSCH**  
**'CAFE MULLER' & 'LE SACRE DU PRINTEMPS'**  
 HOFESH SHECHTER  
 COMPANY FROM THE UK  
 'POLITICAL MOTHER'  
**'A SEVENTH MAN,'**  
**BY JUNG YOUNG-DOO**

**VÁCLAV HAVEL & ARCHA**  
**THEATRE FROM PRAGUE**  
 'TUNE' - KOREAN  
 TRADITIONAL &  
 CONTEMPORARY  
 DANCE PROJECT  
**'LEAVING,'**  
**BY SEO JAE-HYUNG & HAN ARUM**

**AYANA ETOWA**  
**GRABSKY**  
 'MAYLY THE ATTRIBUTES OF THE DODDIN & MINAVELT'  
 'AT THEATER' & 'DODDIN & MINAVELT'

**PETER BROOK & THEATRE DES BOUFFES DU NORD**  
**'11 AND 12'**  
 CHRISTIAN TETZLAFF PLAYS  
**'J.S. BACH 6 SONATAS & PARTITAS'**  
**EMERSON STRING QUARTET**  
**AKADEMIE FÜR ALTE MUSIK BERLIN**  
 (FEATURING SOPRANO YEREE SUH)  
**ALEXANDRE THARAUD & JEAN-GUIHEN QUEYRAS**  
**WAYNE SHORTER QUARTET**

**DIANNE REEVES**  
**PAT METHENY THE ORCHESTRON TOURMAESTROS**  
**'IN SEARCH OF BEETHOVEN' / 'IN SEARCH OF MOZART'**  
 DIRECTED BY PHIL GRABSKY

**'SWAN LAKE,'**  
**BOURNEMOUTH**

LG아트센터 10주년  
 기획공연 시즌



# CoMPAS

LG Arts Center Contemporary  
Music & Performing Arts  
Season

## 10

참신하고 수준 높은 LG아트센터의 기획공연 시즌을 상징하는 새 이름

CoMPAS

동시대의 다양한 영역(compass)의 공연예술을 만날 수 있는 곳,

+

새로운 작품과 만나도록 나침반(compass)의 역할을 하는 곳,

+

예술가와 관객 모두의 상상력을 제도(compass)하는 곳,

그곳에 LG아트센터의 기획공연 시즌이 함께 합니다.

2010년 개관 10주년을 맞아 새롭게 선보이는 LG아트센터 기획공연 시즌 브랜드,

CoMPAS,

최고의 공연을 나타내는 이름입니다.

## LG아트센터 2010 기획공연 시즌 CoMPAS

패키지 티켓 오픈:

2009.12.15 (Tue) 9am

개별 티켓 오픈:

2009.12.22 (Tue) 9am



### 할인 안내

01.

#### CoMPAS 패키지

공연을 보는 창조적 습관, CoMPAS 패키지!  
10주년을 맞는 LG아트센터의 기획공연을  
가장 좋은 좌석에서, 가장 저렴하게 보는 방법은  
역시, CoMPAS 패키지입니다. 최대 35% 할인!

• 패키지를 추천하시는 분에게 아트포인트 50점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02.

#### 조기예매 할인

2009년 12월 22일부터 2010년 1월 15일까지  
개별공연 구매 시 10% 조기예매 할인을  
드립니다. (단, 영화의 경우 조기예매 할인 적용이 불가합니다.)

03.

#### 학생 할인

2010년 모든 기획공연에 대해 20% 학생할인을  
제공합니다. 초, 중, 고, 대학생 및 대학원생 본인  
관람 1매에 한하여, 회당 100매 한정 판매합니다.  
등급 구분 없이 구매할 수 있으나, 학생 할인석  
매진 시 정상가격이 적용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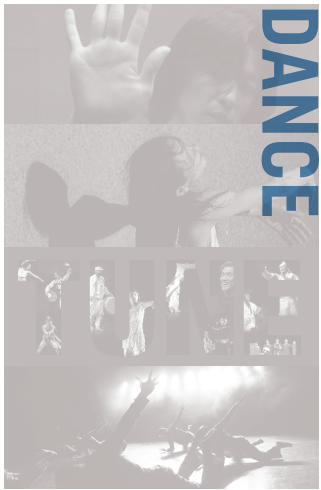
#### 주의사항

- 티켓 수령 시 본인확인을 위해 학생증을 제시해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 차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 이미 구입한 티켓에 한해서는  
학생할인 혜택을 소급 적용하지 않습니다.

#### LG아트센터 - 신한 제휴카드 할인

LG아트센터 - 신한 빅플러스 GS칼텍스 카드, LG아트센터 - 신한 레이디 카드로  
결제하시면 결제금액의 10%가 추가 청구할인됩니다. 카드 가입 및 자세한 서비스  
내용 확인은 신한카드 및 LG아트센터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 DANCE

정영두 <제7의 인간>  
'A Seventh Man' by Jung Young-Doo  
3.10(Wed)-11(Thu) 8pm

피나 바우쉬 부퍼탈 탄츠테아터  
<카페 뮐러> & <봄의 제전>  
Tanztheater Wuppertal Pina Bausch  
'Café Müller' & 'Le Sacre du Printemps'  
3.18(Thu)-21(Sun)  
Weekdays 8pm / Weekend 4pm

<Tune> : 조을  
'Tune' - Korean traditional &  
contemporary dance project  
4.9(Fri)-10(Sat) Fri 8pm / Sat 4pm

영국, 호페쉬 팩터 컴퍼니  
<Political Mother>  
Hofesh Shechter Company from the UK  
'Political Mother'  
6.12(Sat)-13(Sun) 4pm



## THEATRE

체코 아르하 극장,  
바츨라프 하벨의 <Leaving>  
Václav Havel & Archa Theatre  
from Prague 'Leaving'  
4.2(Fri)-4(Sun)  
Fri 8pm / Weekend 4pm

한아름 작, 서재형 연출 <토너먼트>  
'A Tournament'  
by Seo Jae-Hyung & Han Arum  
4.20(Tue)-25(Sun)  
Weekdays 8pm /  
Weekend 3pm & 7pm

레프 도진 연출,  
상트 페테르부르크 말리 극장  
<바나 아저씨>  
Lev Dodin & The Maly Drama Theatre of  
St. Petersburg 'Uncle Vanya'  
5.5(Wed)-8(Sat)  
Wed 6pm / Thu & Fri 8pm / Sat 4pm

피터 브룩 연출 <11 그리고 12>  
Peter Brook & Théâtre des Bouffes du  
Nord '11 and 12'  
6.17(Thu)-20(Sun)  
Weekdays 8pm / Sat 3pm & 7pm /  
Sun 4p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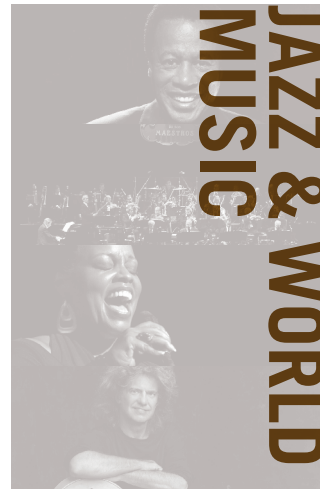
## CLASSICAL MUSIC

베를린 고음악 아카데미 &  
소프라노 서예리  
Akademie für Alte Musik Berlin  
(featuring soprano Yeree Suh)  
2.17(Wed) 8pm

크리스티안 테츨라프  
Christian Tetzlaff plays  
'J.S. Bach 6 Sonatas & Partitas'  
2.23(Tue) 7:30pm

알렉산드르 타로 &  
장-기엔 케라스  
Alexandre Tharaud &  
Jean-Guihen Queyras  
3.23(Tue) 8pm

에머슨 스트링 콰르텟  
Emerson String Quartet  
6.6(Sun) 7pm



## JAZZ & WORLD MUSIC

웨이인 쇼터 콰르텟  
Wayne Shorter Quartet  
3.2(Tue) 8pm

부에노스 아이레스 탱고 마에스트로  
Café de los Maestros  
3.12(Fri) 8pm

다이안 리브스  
Dianne Reeves  
3.26(Fri) 8pm

팻 메시니 슬로 <오케스트리온>  
PAT METHENY 'The Orchestron Tour'  
6.2(Wed)-5(Sat)  
Weekdays 8pm / Sat 7pm



## ENTERTAINMENT

매튜 본의 댄스뮤지컬 <백조의 호수>  
Matthew Bourne's 'Swan Lake'  
5.12(Wed)-30(Sun)  
Weekdays 8pm /  
Weekend 3pm & 7pm  
\* 5.13(Thu) 3pm & 8pm /  
5.21(Fri) 7pm  
\* No show on Mondays



## MOVIE

영화 <베토벤을 찾아서> /  
<모차르트를 찾아서>  
'In Search of Beethoven' /  
'In Search of Mozart'  
directed by Phil Grabsky  
3.28(Sun) 1pm / 5pm

# 1/2/3

SUNDAY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24 | 25 | 26 | 27 | 28 | 29 | 30

31 | 1 | 2 | 3 | 4 | 5 | 6

## 2

7 | 8 | 9 | 10 | 11 | 12 | 13

14 | 15 | 16 | 17 | 18 | 19 | 20

**C** 베를린 고음악 아카데미 & 소프라노 서예리

21 | 22 | 23 | 24 | 25 | 26 | 27

**C** 크리스티안 테츨라프

28 | 1 | 2 | 3 | 4 | 5 | 6

## 3

7 | 8 | 9 | 10 | 11 | 12 | 13

**J** 웨인 쇼터 콰르텟

**D** 정영두 <제7의 인간>

**I** 부에노스 아이레스 랑고 마에스트로

14 | 15 | 16 | 17 | 18 | 19 | 20

**D** 피나 바우쉬 부퍼탈 탄초테아터 <카레 필리> & <불의 제전>

21 | 22 | 23 | 24 | 25 | 26 | 27

**C** 알렉산드르 타론 & 장-기엔 케라스

**I** 다이안 리브스

LG아트센터 개관 기념임

28 | 29 | 30 | 31 | 1 | 2 | 3

## 4

**M** 영화 <베토벤을 찾아서> / <모차르트를 찾아서>

**T** 체코 이르하 극장, 바츨라프 하벨의 <Leaving>

4 | 5 | 6 | 7 | 8 | 9 | 10

**D** (Tune: 조율)

# 4/5/6

SUNDAY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T** 환아를 작, 서세형 연출 (토너먼트)  
**T** 레프 도진 연출, 상트 페테르부르크 말리 극장 (바나 이저제)  
**E** 매튜 본의 댄스뮤지컬 (배조의 홍수)

# 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J** 팻 매시너 솔로 (오케스트라온)  
**D** 영국, 오페라 워터 콰터니 (Political Mother)  
**T** 피터 브룩 연출 (11 그리고 12)

# 6

**C** 에머슨 스트림 콰르텟





# Akademie für Alte Musik Berlin

featuring soprano Yeree Suh

© Peter Witt

바흐의 향연

## 베를린 고음악 아카데미 소프라노 서예리 협연

2.17(Wed)  
8pm

R 80,000 won  
S 60,000 won  
A 40,000 won  
\*

공연시간  
1시간 50분 /  
휴식 1회 포함  
Duration: 1hr 50mins incl.  
1 interval  
\*

프로그램  
J.S. 바흐  
관현악 모음곡 제1번,  
바이올린 협주곡 BWV1052,  
오보에 협주곡 BWV1060,  
소프라노 칸타타 BWV51

\*상기 프로그램은 연주자의  
사정에 따라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J.S. 바흐 협주곡집  
(Harmonia Mundi)

프라이부르크 바로크 오케스트라와 함께 독일에서 가장 중요한 시대악기 앙상블로 꼽히는 베를린 고음악 아카데미(Akademie für Alte Musik Berlin, 일명 아카무스/AKAMUS)가 처음으로 내한한다. 이들의 첫 내한에는 바로크에서 현대음악까지 폭넓은 레퍼토리를 소화하며 유럽음악계에서 '무서운 유망주'로 주목 받고 있는 재독 소프라노 서예리가 동행한다. 아카무스는 1982년 시대연주에 대한 관심이 전무하던 동베를린 젊은 연주자들이 모여 열정 하나로 당대 연주를 연구해 온 동독 고음악 역사의 산 증인이다. 통일 후 1990년대 이들의 뛰어난 앙상블을 알아본 고음악계의 거장 르네 야콥스의 도움으로 아모니아 문디와 녹음을 시작한 후, 지금까지 그라모폰상, 그래미상, 황금 디아프조상, 독일 음반비평가상 등을 수상하며 자신들의 이름과 저력을 세계에 알리고 있다. 그리고 아카무스의 오랜 파트너인 서예리는 몬테베르디의 '오르페오'부터 진은숙의 '말의 유희'에 이르기까지 시대를 넘나드는 레퍼토리를 빼어나게 소화하며 임선혜와 함께 유럽 음악계의 러브콜을 받고 있는 젊은 한국인 소프라노다.

아카무스는 이번 공연에서 흥미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1부에서는 원곡이 소실되어 오늘날에는 하프시코드 편곡 버전으로 더욱 알려져 있는 J.S.바흐의 BWV1052, BWV1060 협주곡을 복원하여 본래의 바이올린과 오보에 협주곡으로 연주한다. 또한 2부에서는 화려한 소프라노의 기교가 돋보이는 솔로 소프라노를 위한 교회 칸타타 BWV51을 서예리의 협연으로 연주한다.



© Monika Schulz-Figuth

“소프라노 서예리.. 매력적인  
목소리와 흥집을 데 없이 깨끗한  
음정, 섬세한 비브라토”  
Heidelberg Zeitung

CLASSICAL MUSIC

Akademie für Alte Musik Berlin(a.k.a AKAMUS), one of the most important period ensembles in Germany, makes their Seoul debut in company with Berlin-based Korean soprano Yeree Suh. AKAMUS began as a courageous display of musical sovereignty against the East German socialist regime in 1980s and over almost 30 years later, they enjoy recognition as one of Europe's greatest musical success stories. Yeree Suh, versatile singer whose repertoire spans from Baroque to 21st century, will present her passion for baroque repertoire to the Korean audience for the first time in this upcoming concert with AKAMUS.

“뛰어난 앙상블! 연주자들이 서로에 귀 기울이며 연주를 즐기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즐겁다.”  
Boston Globe



# Christian Tetzlaff

## plays J.S. Bach's Complete Sonatas and Partitas for Solo Violin

"39세의 테츨라프가 바흐에서 보여준 올림푸스의 신과 같은 당당함... 이 연주는 처음부터 끝까지 살아 숨쉬며 곡이 진행됨에 따라 유기적으로 발전한다. 테츨라프가 50세에 어떻게 연주할지 상상해보라."

The New York Times

© Alexandra Vossling

2.23(Tue)  
7:30pm

R 70,000 won

S 50,000 won

A 30,000 won

\*

공연시간

3시간 30분 /

휴식 1회(1시간) 포함

Duration: 3hrs 30mins incl.

1hr interval

\*

프로그램

J.S. 바흐 6개의 무반주 소나타와 파르티타 전곡  
BWV1001-1006

\* 상기 프로그램은 연주자의 사정에 따라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J.S. 바흐  
무반주 소나타와 파르티타  
(Hänssler)

바이올린 연주의 척도

## 크리스티안 테츨라프

J.S. 바흐

'무반주 소나타와 파르티타 전곡'

안네 소피 무터, 프랑크 페터 침머만과 함께 독일을 대표하는 바이올리니스트인 크리스티안 테츨라프(Christian Tetzlaff)가 처음으로 내한한다. 특히 그는 홀로 무대에 서서 바이올린 곡의 성전과도 같은 J.S. 바흐의 "무반주 소나타와 파르티타 6곡" 전곡을 하루에 들려주는 특별한 연주를 펼친다. 테츨라프는 고전에서부터 리게티, 진은숙 등 현대에 이르기까지 도전하는 곡마다 높은 완성도와 탁월한 기교, 지적인 해석으로 바이올린 연주의 척도를 보여준다는 평가 속에, 지금까지 그라모폰지 크리틱스 초이스(바르토크), 황금디아파종상(시벨리우스), 미켈 어워드(베토벤) 등 주요 음반상을 수상하였다. 그는 이미 1993년 버진 클래식에서 처음으로 무반주 소나타와 파르티타 전곡을 처음으로 녹음하여 커다란 호평을 받았으며, 12년 뒤인 2005년 한층 더 자유롭고 상상력 넘치는 해석을 선보인 두 번째 녹음(햐슬러 클래식) 역시 독일 에코 클래식상을 수상하고 그라모폰지 에디터스 초이스에 선정되는 등 폭넓은 찬사를 받았다. 선율 약기의 가능성을 극대화시키고 숭고하고 경건한 표현의 경지로 끌어올린 바흐의 이 역작을 "어둠에서 빛으로의 여정(a journey from darkness to light)"이라 표현하는 테츨라프. 그는 이 곡에 대한 남다른 애착을 가지고 하루 밤에 전곡을 연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뉴욕 링컨센터, 잘츠부르크 모차르테움 등 세계 유명 공연장에서 연주하고 있다. 크리스티안 테츨라프의 첫 리사이틀은 전곡을 한번에 듣기 어려운 바이올린의 '고전 중의 고전'을 현재 가장 뛰어난 연주력을 자랑하는 최정상급 바이올리니스트의 연주로 감상하는 놓칠 수 없는 기회가 될 것이다.

CLASSICAL MUSIC



"언제나 가장 사려 깊고 상상력 넘치는 바이올리니스트인 크리스티안 테츨라프는 바흐의 무반주 소나타와 파르티타가 흥미진진하면서 동시에 보람있는 도전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Gramophone

Internationally acclaimed German violinist Christian Tetzlaff gives his debut recital in Seoul with *J.S. Bach's 6 Sonatas & Partitas for Solo Violin*, perhaps the most monumental violin piece ever written. Tetzlaff has established himself as one of today's most notable violinists through his thoughtful approach armed with technical impeccability to the repertoire from Bach to Ligeti and Unsuk Chin. The upcoming concert will find Tetzlaff performing on stage all by himself the whole cycle in one evening. It will be a rare opportunity to hear the cycle from one of today's most renowned violinists.

# Wayne Shorter Quartet

“그는 지난 20년을 통틀어 가장 끊임없이 변화를 추구한 뮤지션이었다. 실로 놀라운 작곡가이자 색소포니스트다.”  
Rolling Stone

© Henry Leutwyler

3.2(Tue)  
8pm

R 100,000 won  
S 80,000 won  
A 60,000 won  
B 40,000 won

그의 연주 자체가 곧 재즈의 역사가 된다

## 웨인 쇼터 콰르텟

9번의 그레미 수상 경력에 빛나는 재즈사의 가장 위대한 색소포니스트이자 창조적인 작곡가, 지난 반세기 동안 재즈의 역사를 써 내려온 살아있는 전설 웨인 쇼터가 드디어 처음으로 한국을 찾는다. 1964년부터 마일즈 데이비스 콰르텟의 일원이 되면서 그룹을 '재즈 역사상 가장 찬란한 그룹 중 하나'라는 평가를 받도록 이끈 그는 1970년 퓨전재즈 그룹 웨더 리포트를 창시하면서 음악인생의 두 번째 막을 연다. 1985년 그룹이 해체할 때까지 다양한 창조적 실험을 선보이며 뛰어난 음악적 영감을 뽐내었던 그의 실험정신은 이후 솔로 아티스트로서의 갖가지 작업과 오늘날의 콰르텟 활동에 이르기까지 계속된다. 이번 공연에는 2000년대 이후 웨인 쇼터 콰르텟 멤버로 활동하고 있는 브라이언 블레이드(Brian Blade, 드럼), 존 패티투치(John Patitucci, 베이스), 다닐로 페레즈(Danilo Perez, 피아노)가 함께 한다. 2008년 소니 롤린스가 색소폰을 연주한 것인지, 색소폰이 소니 롤린스를 연주한 것인지 모를 정도로 황홀했던 밤을 기억한다면, 재즈의 역사를 온 몸으로 살아온 또 한 명의 거장이 여든 살에 가까운 나이에도 색소폰의 모든 질감을 완벽하게 들려줄 이번 공연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 관객들은 삶이 깊어질수록 색소폰의 한음 한음 역시 깊어짐을 목도하게 될 것이다.



“그는 팀 내에서 가장 뛰어난 작곡자였다. 그는 마일즈 데이비스(Miles Davis)가 바꾸지 못한 것을 바꾸어 낸 몇 안 되는 사람 중 한 명이다.”  
허비 행콕(Herbie Hancock)

JAZZ & WORLD MUSIC

Wayne Shorter, one of the most significant and most creative saxophonists and composers in jazz and modern music, comes to Korea for the first time. He has won 9 Grammy Awards and received 13 Grammy nominations to date. He was a band member of Miles Davis Quintet as well as Weather Report which were both known as “the most influential jazz band of the 20th century.” Through his work and music career Shorter has completely changed modern music, and influenced generations of countless other musicians and composers. In March, he will perform with his quartet featuring Brian Blade on drum, Danilo Perez on piano, and John Patitucci on bass. Do not miss this fabulous jazz night.



# 'A Seventh Man'

by Jung Young-Doo



© 김태원

3.10(Wed)  
~ 11(Thu)

8pm

전석 40,000 won

\*

\* LG아트센터 제작

\* 본 작품의 제목은 눈빛출판사의 <제7의 인간>(존 버거 & 장 모르 저 / 차미레 옮김)에서 차용함을 밝힙니다.

삶의 진정성을 담은 안무가

## 정영두의 <제7의 인간>

2004년, '정영두'라는 이름이 무용계에 목격한 파장을 일으켰다. 그의 신작 <달지 않은 공기>가 끝나갈 무렵, 많은 관객들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그 당시 객석에 있었던 이들은 무대 위의 몸이 그렇게 진한 감흥으로 다가올 수 있었다는 사실을 지금도 경이롭게 기억한다. 같은 해 그는 <내려오지 않기>로 일본 '요코하마 댄스 컬렉션'에서 대상을 수상하면서 일본과 프랑스로 입지를 넓혀 나갔다. 이후 그는 <텅 빈 흰 몸>, <걷다, 서다, 팔을 뻗다>, <내가 가진 하늘> 등 몸이 지닌 표현력으로 정면 승부하면서, '불거리'를 펼쳐놓는 무용이 아니라 분명한 메시지와 감정으로 관객들의 가슴과 소통하는 작품들을 만들어 냈다. 그의 춤이 특별한 배경에는 테크닉을 집요하게 탐구하고 정제시켜, 전달하고자 하는 주제에 밀착된 움직임의 뽀아내는 장인적인 작업과정이 있다. 그리고 좋은 세상을 위한 실천적 삶을 살고자 하는 진정성 또한 그의 춤에 오롯이 녹아있다. 정영두의 신작 <제 7의 인간>은 이민노동자의 체험을 다큐멘터리 기록 형식으로 담아낸 존 버거(John Berger) & 장 모르(Jean Mohr)의 공동저서 <제 7의 인간>에서 영감을 얻었다. 정영두는 이를 토대로 우리 모두가 겪는 삶의 경험과 감정들-떠남과 남겨짐, 생존과 투쟁, 고독 그리고 희망-을 이야기 하고자 한다. 최근 몇 년간 워크숍과 해외 예술가들과의 교류에 집중하며 숨고르기를 해 온 안무가 정영두의 진면목을 만날 수 있는 무대가 될 것이다.



DANCE

LG Arts Center produces a new work by Korean choreographer, Jung Young Doo. In 2004, he was acclaimed as one of the most outstanding young choreographers, most notably by winning Grand Prize at Yokohama Dance Collection in Japan. He persistently examines and refines every movement in order to convey clear message and deep human emotion. His new work, *A Seventh Man* is inspired by the same titled book from John Berger & Jean Mohr. This documentary book about European immigrant workers will be transformed into our own life story - 'separation', 'survival', 'struggle', 'solitude' and 'hope'. Witness the Korean choreographer's true talent.





# Café de los Maestros

“탱고의 우아함과  
아름다움을 부활시키다.”  
Telegraph



지구의 반 바퀴를 돌아,  
부에노스 아이레스의 탱고 거장들이 온다!

JAZZ & WORLD MUSIC

## 부에노스 아이레스 탱고 마에스트로



3.12(Fri)  
8pm

VIP 120,000 won  
R 100,000 won  
S 80,000 won  
A 60,000 won  
B 40,000 won

탱고의 고향,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40-50년대 탱고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전설적인 탱고 뮤지션들이 LG아트센터 무대에 오른다. 아르헨티나의 '부에나 비스타 소셜 클럽'으로 불리는 이들은 영화 <브로크백 마운틴>, <바벨>로 유명한 작곡가 겸 프로듀서 구스타보 산타올랄라(Gustavo Santaolalla)에 의해 기획되어 <카페 드 로스 마에스트로(Café de los Maestros)>란 동명의 타이틀로 음반 및 연주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제 80-90대의 나이가 된 이들은 2005년 앨범 발매 이후, 부에노스 아이레스의 상징인 꼴론 극장(Teatro Colón)에서 공연을 가지며 다시 한번, 라틴 아메리카에 탱고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주인공들이다. 이들의 감격적인 공연 실황과 녹음 및 리허설 장면은 동명의 제목으로 영화화되기도 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2008년, <부에노스 아이레스 탱고 카페>라는 이름으로 개봉하여 관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바 있다. 이번 공연은 귀에 익은 탱고 명곡들을 포함하여 탱고의 진가를 느끼게 하는 다양한 레퍼토리들을 '탱고의 영혼'으로도 불리는 반도네온 연주와 바이올린, 첼로, 더블 베이스, 피아노, 기타 등의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려줄 예정이다. 페르난도 수아레스 빠스(Fernando Suarez Paz), 루이스 스타소(Luis Stazo), 후안 까를로스 고도이(Juan Carlos Godoy), 아니발 아리아스(Anibal Arias) 등 탱고의 살아있는 역사라 할 수 있는 이들의 연주를 들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말자.

A tango orchestra project from Buenos Aires, 'Café de los Maestros', is a loving showcase for the greatest living tango stars of Argentina from the 1940s and 1950s. Produced by Gustavo Santaolalla, Oscar-winning composer of Hollywood film scores such as *Brokeback Mountain* and *Babel*, the tango musicians will perform many of the famous songs of the genre from its heyday in the South America of the 1940s and 50s. Café de los Maestros are often referred to as Argentinian Buena Vista Social Club. Their show in Korea features stars such as Fernando Suarez Paz, Luis Stazo, Juan Carlos Godoy, and Anibal Arias. The tango stars will make a memorable and moving evening.





Tanztheater  
Wuppertal  
Pina Bausch

## ‘Café Müller’ &

## ‘Le Sacre du Printemps’

© J Paulo Pimenta

© Laszlo Szito

3.18(Thu)  
~21(Sun)

Weekdays 8pm  
Weekend 4pm

VIP 120,000 won  
R 100,000 won  
S 80,000 won  
A 60,000 won  
B 40,000 won  
\*

공연시간

1시간 50분 / 휴식 1회 포함  
Duration: 1hr 50mins incl.  
1 interval

그녀는 갔지만 예술은 영원히 남았다

## 피나 바우쉬 부퍼탈 탄츠테아터 〈카페 뮐러〉 & 〈봄의 제전〉

지난 2009년 6월 갑작스런 타계로 세계 예술계에 엄청난 충격과 슬픔을 안겨주었던 안무가 피나 바우쉬. 자신만의 표현과 미학, 자신만의 신념과 세계를 창조해냈고,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예술에 대한 열정을 불태웠으며, 이제는 영원히 잊지 못할 전설로 남아버린 그녀. 20세기 현대 무용에 일대 혁신을 일으키며 새롭게 피나 바우쉬의 전성시대를 열어주었던 그녀의 대표작 두 편을 만난다. 부모님이 운영하시던 카페에 대한 유년시절의 기억을 담은 자전적인 작품 〈카페 뮐러〉(1978년 작)와 지금으로부터 30여년 전인 1979년 부퍼탈 탄츠테아터의 첫 내한작품으로서 그녀가 한국과 이어갈 오랜 인연의 싹을 틔워 주었던 〈봄의 제전〉(음악: 스트라빈스키, 1975년 작). 특히 〈카페 뮐러〉를 통해 한국의 무대에서 직접 춤추겠다는 그녀의 약속은 이제 지킬 수 없게 되었지만, 마치 그녀의 분신과도 같은 베테랑 무용수들과 제자들은 혼신을 다해 그녀의 위대한 예술혼을 무대 위에 온전히 되살려낼 것이다. 작품을 통해 다시금 느껴보는 피나 바우쉬의 숨결. 그녀를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팬이라면 이번 공연을 결코 놓쳐서는 안될 것이다. 이제 우리는 가슴으로 그녀와 조우한다.

“20세기 동안 수많은 버전의 ‘봄의 제전’을 보았지만 피나 바우쉬의 것만큼 강렬한 작품은 없었다고 확신한다.”

The Times

DANCE

Tanztheater Wuppertal will perform two seminal works, drawn from the early stages of Pina Bausch's extensive repertoire. *Café Müller*, created in 1978, is an autobiographical piece reflecting Bausch's childhood memories of watching mysterious adult relationships in her father's café. The double bill is completed by her acclaimed 1975 work, *Le Sacre du Printemps* (*The Rite of Spring*). Ritualistic and elemental, this adaptation of Stravinsky's masterpiece sees the dancers perform to near exhaustion in a dark field of peat.



© LG Arts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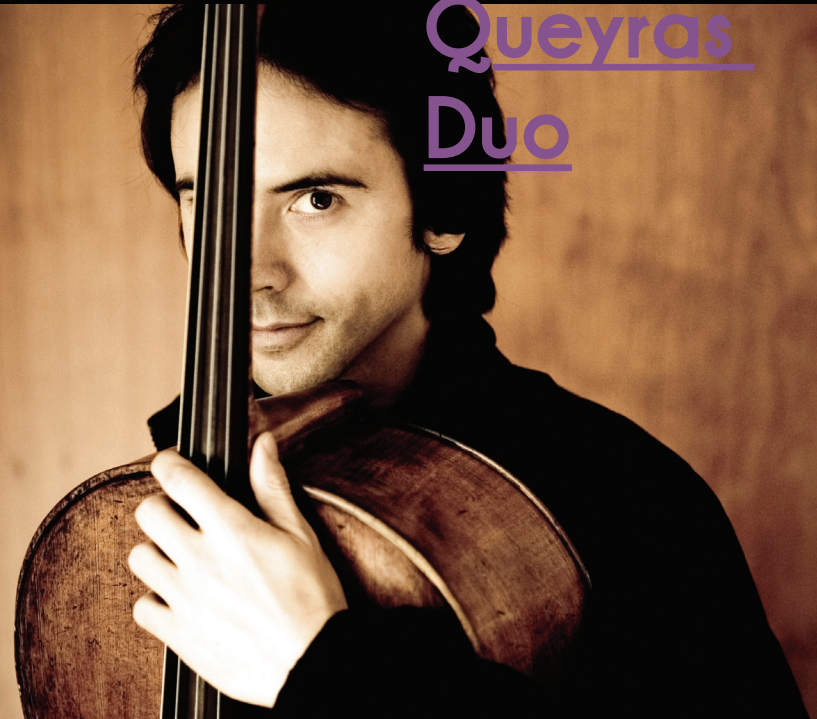




“장-기엔 케라스와 표정 풍부한 피아니스트 알렉상드르 타로는 미묘한 감정을 눈부시게 표현해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음색의 영역을 유지하면서 음악의 친밀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간다.”  
Telegraph

# Alexandre Tharaud & Jean-Guihen Queyras Duo

© Marco Berggreve



© Marco Berggreve

3.23(Tue)  
8pm

R 70,000 won  
S 50,000 won  
A 30,000 won  
\*

공연시간  
1시간 40분 / 휴식 1회 포함  
Duration: 1hr 40mins incl.  
1 Interval  
\*

**프로그램**  
풀랑크 세레나데,  
프랑스 모음곡, 첼로 소나타 /  
쿠프랭 클라브생 모음곡집 中  
뒤티외 솔로 첼로를 위한  
3개의 노래 /  
드뷔시 녹턴과 스케르초,  
첼로 소나타

\* 상기 프로그램은 연주자의  
사정에 따라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드뷔시, 풀랑크 첼로 소나타 등  
(Harmonia Mundi)

아름다운 프랑스, 그 수려한 연주

## 알렉상드르 타로 & 장-기엔 케라스 듀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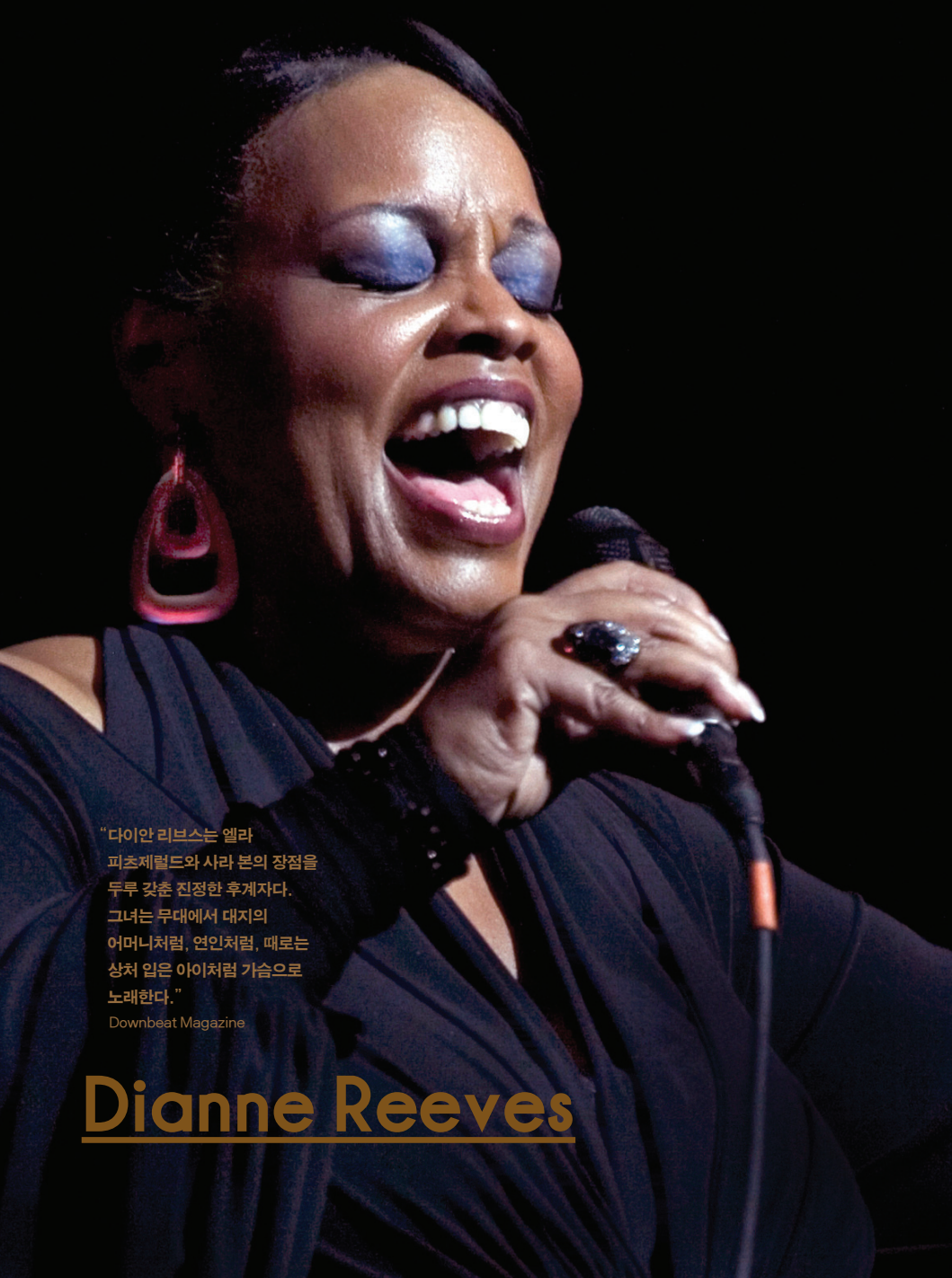
프랑스 피아니즘을 가장 이상적으로 표현하는 연주자, 알렉상드르 타로(Alexandre Tharaud)가 자신의 실내악 파트너이자 프랑스 현대음악의 계승자로 평가 받는 첼리스트 장-기엔 케라스(Jean-Guihen Queyras)와 함께 처음으로 LG아트센터 무대에 오른다. 2007년 내한에서 타로는 프랑스적 색채가 짙은 피아노 솔로 곡들을 연주하여 프랑스 전역을 휩쓸었던 '알렉상드르 타로 현상'을 특특히 증명해 보였는데 이번 공연에서는 자신의 바로크 대표 레퍼토리인 쿠프랭의 '틱, 톡, 축'으로 또 한번 프랑스 정통 연주 스타일을 선보인다. 특히 이번 무대는 쿠프랭 뿐만 아니라 드뷔시와 풀랑크의 소품 및 첼로 소나타, 뒤티외 등 18-20세기까지 프랑스 음악의 계보를 잇는 작곡가들의 레퍼토리로 케라스와 함께 솔로, 듀오 무대를 교차시키며 색다르게 꾸며질 예정이다. 타로와 호흡을 맞출 장-기엔 케라스는 아모니아 문디의 간판 첼리스트로 세계적인 현대음악 단체인 '앙상블 앙테르콩템포랭(Ensemble Intercontemporain)'의 멤버로 활동했고, 피에르 불레즈와 녹음한 리게티 첼로 협주곡 음반은 그라모폰상을 수상하였다. 바로크는 물론 20세기를 넘어 21세기 현대 작품까지 소화하는 폭넓은 레퍼토리를 가진 그의 첫 내한연주 또한 주목할 만 하다. 프랑스 음악계의 현재를 대표하며 가장 수려한 연주를 들려줄 두 아티스트, 알렉상드르 타로와 장-기엔 케라스의 더욱 이지적이고 섬세한 프랑스 선율이 기대된다.



© Marco Berggreve

“케라스와 타로, 이들이 함께한 드뷔시와 풀랑크 연주는 지적이고, 감성적이며 명료하다.”  
Sunday Times

Alexandre Tharaud, one of the most idealistic pianists of French pianism, is coming to LG Arts Center with Jean-Guihen Queyras, acclaimed as a successor of contemporary French music. Having already garnered a great reputation since his first concert in Korea, Tharaud will perform all French repertoire from baroque to contemporary music including *Tic, Toc, Choc* by Couperin, and works by Debussy, Poulenc and Dutilleux in duo with Queyras. Particularly, Queyras, a Gramophone award winner in the contemporary music category for Ligeti's Cello Concerto conducted by Pierre Boulez, meets Korean audience for the first time at LG Arts Center.



“다이안 리브스는 엘라 피츠제럴드와 사라 본의 장점을 두루 갖춘 진정한 후계자다. 그녀는 무대에서 대지의 어머니처럼, 연인처럼, 때로는 상처 입은 아이처럼 가슴으로 노래한다.”

Downbeat Magazine

# Dianne Reeves

3.26(Fri)  
8pm

R 80,000 won

S 60,000 won

A 40,000 won

2년 만에 다시 찾아온 재즈 여제

## 다이안 리브스

전석이 매진되었던 2008년 공연 당시 독보적 카리스마와 다양한 레퍼토리로 관객을 압도했던 의심의 여지 없는 재즈 여제, 다이안 리브스(Dianne Reeves)가 2년 만에 다시 한국을 찾는다. 2008년과 같이 quintet 구성으로 진행될 이번 공연은 그녀의 음악 감독이자 걸출한 재즈 피아니스트인 피터 마틴(Peter Martin)을 포함한 4명의 세션이 함께 하며 더 깊고 풍부한 소리를 들려줄 예정이다.

1980년대 중반 부활을 꾀하던 블루노트와 처음으로 계약하며 커리어를 시작한 다이안 리브스는 20여 년 동안 20여 장의 앨범을 발매하며 최정상급의 재즈 보컬리스트로 이름을 떨쳐 왔다. 풍부한 성량으로 소프라노에서 알토까지 모든 영역의 보컬을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그녀는 재즈 스탠더드는 물론 팝과 R&B 성향의 음악도 능숙히 소화해내며 엘라 피츠제럴드의 열정과 사라 본의 정교함, 그리고 빌리 홀리데이의 감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고 평가 받는다. 또한 다이안 리브스는 3년 연속 수상(2001-2003)을 포함하여 총 네 차례의 그래미상(베스트 재즈 보컬)을 받은 세계가 인정한 아티스트이며, 솔트레이크 시티 동계 올림픽 폐막식과 LA 윌트 디즈니홀 개관 공연 등 셀 수 없이 많은 무대를 경험한 원숙미 넘치는 라이브 무대의 대가이기도 하다.

관객과의 교감과 소통으로도 유명한 그녀가 이번에도 변함없이 관객 모두를 공연의 주인공으로 만들어줄 것이다. 2008년을 기억하는 이라면, 다가올 봄날의 저녁을 그녀와 함께 재즈 선율로 채워보자.

## JAZZ & WORLD MUSIC



“누군가 스스로 다이안 리브스보다 노래를 잘할 수 있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틀림없는 거짓말이다.”

Popmatters Magazi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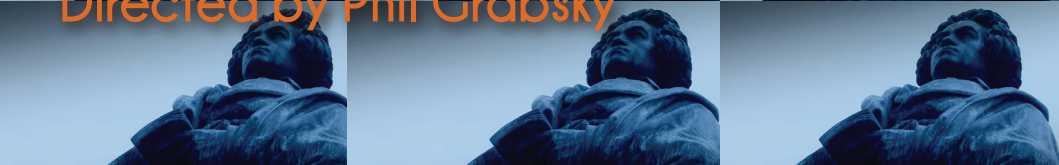
Dianne Reeves, undoubtedly one of the most renowned jazz vocalists today, returns with her quintet in two years. Her last show in 2008 at LG Arts Center enthralled the full house through her versatile vocal colors and an outstanding ability to engage the audience to her performance. Ranging from soprano to alto with bountiful volume, her voice has mesmerized the world for more than 20 years in her live performances as well as in numerous albums on Blue Note, among which she won four Grammys in the best jazz vocal and the best jazz vocal album. Reeves' upcoming show will certainly make another memorable experience full of wonder and pleasure.





# 'In Search of Beethoven' / 'In Search of Mozart'

Directed by Phil Grabsky



우리는 그들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 영화 <베토벤을 찾아서> / <모차르트를 찾아서> 필 그랩스키 감독

3.28(Sun)

'Beethoven'  
1pm(2hrs 20mins)

'Mozart'  
5pm(2hrs 10mins)

전석 15,000 won

\* 각 영화 상영 후 감독과의 Q&A 세션

\* Interviewees & Performers  
<베토벤을 찾아서>  
리카르도 사이,  
지아난드레아 노세다,  
파비오 루이지,  
로널드 브라우티검,  
에마누엘 악스, 레이프  
오베 안스네스, 조나단  
비스, 엘렌 그리모,  
폴 루이스, 바딤 레핀, 알반  
게르하르트 등

<모차르트를 찾아서>  
로저 노링턴 경, 프란츠  
브뤼헨, 르네 아콕스,  
피에르 로랑 에마르,  
레이프 오베 안스네스,  
랑랑, 로널드 브라우티검,  
르네 플레밍, 이안  
보스트리지, 재닌 안센 등

베토벤은 단순히 개인적인 고통을 고결한 예술로 승화시켰기에 가장 위대한 작곡가로 추앙받는 것일까? 모차르트는 진정 악상이 떠오르는 대로 단번에 음악을 써 내려간 천재였을까? 다큐멘터리 영화 <베토벤을 찾아서>와 <모차르트를 찾아서>는 그동안 영화를 통해 두 위대한 작곡가에 드리워진 모든 신화적 요소를 걷어내고, 전문가의 연구 증언과 정상급 현역 연주자들과의 생생한 인터뷰와 연주, 그리고 베토벤과 모차르트가 생전에 쓴 서신의 내용을 바탕으로 두 작곡가의 생애와 음악을 연대기적으로 추적하고 있다.

영국 출신의 필 그랩스키 감독이 2006년 <모차르트를 찾아서>를 처음 발표했을 때, '센세이셔널 했던 천재' 모차르트의 이미지를 벗어나 자료와 연구를 통해 증명된 객관적인 사실과 다양한 음악을 바탕으로 작곡가를 새롭게 조명한 영화로 높은 찬사를 받았다. 그리고 2009년 그랩스키 감독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작곡가로 평가받는 베토벤을 탐구한 완성도 높은 영화를 또 한번 발표하면서 음악 및 영화 애호가 모두에게 다시 한번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

LG아트센터가 특별 프로그램으로 선보이는 이 두 영화는 3월 28일(일) 하루 동안 상영될 예정이며, 각 영화 상영 후 감독 필 그랩스키와의 Q&A 세션도 마련한다. 고전 음악 애호가뿐만 아니라 입문자에게도 유익한 이 영화는 로저 노링턴, 르네 플레밍, 리카르도 사이 등 이름만으로도 관심을 끄는 연주자들의 열정적인 인터뷰와 연주가 그 감동을 더할 것이다. 특히 생생한 현장감을 전하는 LG아트센터의 음향으로 감상할 프란츠 브뤼헨 지휘의 베토벤 '합창' 교향곡 연주는 영화 <베토벤을 찾아서>의 백미가 될 것이다.

"<모차르트를 찾아서>는 거장에 대한 헌사이면서 영화 <아마테우스>의 허구에 대한 옹기있는 회답이다."

The New York Times

"지금까지 본 베토벤에 관한 영화 중 가장 잘 만든 영화"

The Guardian

MOVIE



Phil Grabsky's award winning documentary films, *In Search of Beethoven*(2009) and *In Search of Mozart*(2006) have brought together the world's leading performers and experts on Mozart and Beethoven to shed new lights on these great composers. The two films are highly acclaimed for taking a comprehensive look at the legendary composers by documenting their major pieces chronologically corresponding to the composers' biographies and letters. The films will be enjoyed not only by those who are already familiar with the composers but also by those who would begin listening to classical music! Each film screening will be followed by a Q & A session with the director.





“프라하에서 진정한 21세기 연극을 보고 싶다면, 독창성과 은유성, 동시에 무대 미학이 빛나는 작품을 보고 싶다면, 아르하 극장으로 가서 하벨과 라독의 <Leaving>을 보라”

Literarni noviny

# Václav Havel & Archa Theatre from Prague ‘Leaving’

© Divaldo Archa

극작가로 돌아온 하벨, 권력에 대해 묻다

THEATRE

## 체코 아르하 극장, 바츨라프 하벨의 <Leaving>

동구권을 대표하는 부조리극 작가에서 체코슬로바키아의 공산주의에 반대하는 반체제 인사로, ‘벨벳 혁명’을 이끈 국민적 영웅에서 체코 공화국의 초대 대통령으로, 말 그대로 파란만장한 인생 역정을 살아온 바츨라프 하벨. 그가 20년 만에 발표한 신작 <Leaving>이 LG아트센터 무대에 오른다. 체코 프라하의 아르하 극장이 제작하고 체코 출신의 데이비드 라독이 연출한 <Leaving>은 공연 자체가 ‘2008년 유럽 연극계의 최고의 사건 중 하나’로 꼽힐 만큼 국제적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초연에 가졌고, 그 호응 역시 뜨거웠다. 셰익스피어의 <리어 왕>과 체홉의 <벚꽃 동산>을 모티브로 삼은 <Leaving>은 ‘권력의 상실과 그것으로 인한 상실감’을 극화한 작품으로 ‘권력과 관계, 사랑의 떠남’에 관한 연극이다. 하벨은 지난 20여 년 동안 활동을 놓았던 작가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권력과 인생의 부조리함을 신랄하고도 통찰력 있게, 그리고 다층적 구조로 그려냄으로써 작가로서 그의 명성을 다시 한번 입증한다. 하벨 전 대통령은 극의 중간중간 녹음된 육성으로 출연 배우들의 연기와 무대 연출을 지시하는가 하면, 연극과 인생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기도 한다. 연극의 플롯과 하벨 전 대통령의 인생 여정이 교차하며 작품의 진정성과 울림을 더하는 이 작품은 우리시대 위대한 작가의 귀환이라는 점에서 그 가치가 더욱 빛나는 작품이다.

4.2(Fri)  
~4(Sun)

Fri 8pm  
Weekend 4pm

R 70,000 won

S 50,000 won

A 30,000 won

\*

공연시간

2시간 / 휴식 1회 포함  
(1막-1시간 / 2막 40분)

Duration: 2hrs incl. 1 interval  
(Act 1: 1hr / Act 2: 40mins)

\* 체코어로 공연되며,  
한국어 자막이 제공됩니다.

\* 공연 일부 장면에  
전신 노출이 있습니다.  
Contains nudity.



© Divaldo Archa

Former Czech president and playwright Václav Havel's first play in nearly two decades, *Leaving*, will be presented in Korea. Havel's return to theatre world attracted huge international attention and won a standing ovation in May 2008, in Prague. Produced by Archa Theatre from Czech Republic, the play was directed by David Radok, a well-known opera director. Havel's *Leaving*, inspired by Shakespeare's *King Lear* and Chekhov's *The Cherry Orchard*, tells the story of a former chancellor whose life collapses after he loses power. *Leaving* proves that Havel is still capable of producing an excellent absurd drama that has long been his trademark. Inevitably, the plot of the play is parallel to Havel's life, which gives an echo of the play. Havel's theatrical comeback with *Leaving* will be undoubtedly one of the most important theatre events in 2010.

“바츨라프 하벨의 <Leaving>은 올해 가장 기다려온 연극적 사건이다. 그것은 기립박수로 막을 내렸다”

MF Dnes





# 'Tune'

Korean traditional and contemporary dance project



4.9(Fri)  
~ 10(Sat)

Fri 8pm  
Sat 4pm

R 60,000 won  
S 40,000 won  
A 30,000 won

\* LG아트센터 제작

한국 전통 춤의 명인들과  
현대무용가들이 조우한다

## <Tune: 조율>

LG아트센터는 '매혹', '구도', '신명'이라는 주제 아래 한국 전통 춤의 대표적인 명인들과 현대무용가들이 예술적인 영감을 나누고 서로의 춤사위를 조율하는 무대를 마련한다. 영남 교방춤, 승무, 밀양백중놀이 등 시간을 넘어 한국의 고유한 정신이 살아 숨쉬는 전통 춤과 이 전통 춤의 주제와 미감을 이 시대의 시각으로 새롭게 해석한 현대 창작 춤을 함께 감상하는 특별한 시간이 될 것이다.

첫번째 무대는 영남 교방춤의 박경량과 김은희 & 장현수의 무대. 조선시대 대표적인 예인집단이었던 기생들의 기품 있으면서도 고혹적인 영남 교방춤의 '매혹'은 김은희 & 장현수의 팜파탈적 이미지로 이어지며, 과거와 현대의 미감이 어떠한 접점에서 만나는지 보여줄 것이다.

두번째로 승무의 채상묵과 이용우의 만남. 채상묵은 후배 무용인 이용우에게 승무의 '구도'라는 화두를 전혀 다른 각도에서 파격적으로 다루어줄 것을 제안했다. 내적 고뇌와 깨달음에의 지향을 담은 승무의 고유한 미학을 감상하는 한편, 최근 드라마와 CF활동으로 인해 무대에서 만나기 힘들었던 이용우가 직접 안무한 춤을 볼 수 있는 반가운 기회이다. 마지막은 밀양백중놀이의 하용부와 차진엽이 장식한다. 하용부의 복춤, 범부춤은 음력 7월 보름날, '백중(百中)'이라 하여 바쁜 일손을 놓고 흥겹게 놀았던 우리네 토속적인 흥취를 한껏 느끼게 해 줄 것이다. 또한 분야는 다르지만 선후배로서, 예술적 동지로서 교감을 나누어 온 하용부와 차진엽이 함께 우리 민족이 지닌 '신명'의 기운을 더욱 역동적인 춤판으로 펼쳐낼 것이다.

이 현대와 고전의 조율에 함께 할 음악은 정영만이 이끄는 '남해안 별신굿 보존회', '김주홍과 노름마치', 음악극 집단 '바람꽃'이 맡으며, 소리꾼 장사익이 특별 출연하여 호흡을 맞출 예정이다.

DANCE

LG Arts Center presents a Korean traditional and contemporary dance project. It is composed of three stages with three different themes - 'Mae-Hok(Lure)', 'Koo-Do(Seeking the truth)' and 'Shin-Myung(Joy)'. The masters perform Korean traditional dances: Kyobang-chum(female dance), Seungmu(Buddhist dance) and Book-chum(drum dance), while contemporary dance artists present new pieces inspired by spirit and beauty of the traditional dances. Feel the essence of Korean dance.



# 'A Tournament'

by Seo Jae-Hyung & Han Arum

4.20(Tue)  
~25(Sun)

Weekdays 8pm  
Weekend 3pm & 7pm

전석 40,000 won

\* LG아트센터 제작

\* 후원:



\* 본 공연의 이미지는 실제 공연과 다릅니다.

한국 연극계의 젊은 창작 에너지

## 한아름 작, 서재형 연출 <토너먼트>

'올해의 예술상(2005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동아연극상 새개념 연극상(2005년)', '한국을 이끌 60인(2006년 경향신문)',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2009년 문화체육관광부)' 등을 수상하며 한국 연극계의 '양평 테리블'에서 이제는 미래를 책임질 기대주로 주목을 모으고 있는 연출가 서재형. 그리고 매 작품마다 새로운 극작법을 통해 창작 연극의 개념을 넓혀왔으며, 최근 공연된 웰메이드 뮤지컬 <영웅>에 대본/작사가로 참여함으로써 이제는 장르를 뛰어넘어 다양한 활약을 펼치고 있는 작가 한아름. <죽도록 달린다>, <왕세자실종사건>, <릴-레-이>, <호야 好夜>, <청춘 18대1> 등에 걸친 다양한 작품들을 통해 새로운 실험과 창의적인 도전을 감행해온 이들은, 평단으로부터 호평을 받는 동시에 관객들로부터는 늘 다음 작품에 대한 기대를 이끌어 내왔다. 자신들만의 독창적인 연극 형식을 확립하기 위해 멈춤 없이 달려가고 있는 이들 연출가, 작가 콤비가 이제 그 동안 검증 받은 놀라운 창작 역량을 2010년 LG아트센터가 제작하는 신작 <토너먼트>에 쏟아 붓는다. <토너먼트>는 끊임없이 경쟁이 반복되고 승자가 모든 것을 차지하는 현대사회의 일면을 조망하는 작품. 1980년대를 배경으로 서로 다투으면서도 너무나 다른 두 형제가 펼치는 숨 막히는 도전의 과정과 치열한 삶을 그려내는 이 작품은, 점·선·면 개념의 무대와 거기에 입체감을 실어주는 조명, 시대성을 살린 의상과, 대중가요에서부터 라이브로 연주되는 명쾌한 음색의 마림바에 이르기까지 풍부한 정서를 담아낸 음악으로 보는 즐거움에 듣는 즐거움을 더하며 1980년대의 고단하지만 아름다웠던 인생 이야기를 흥미진진하게 풀어낸다. 치열한 연습과 빈틈없는 작업과정으로 정평이 난 이들 명콤비의 젊은 창작 에너지가 LG아트센터의 공간적 특징과 만나 불러 일으킬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라.

THEATRE

Director Seo Jae-Hyung, the winner of 2009 Young Artist Awards hosted by the Korean Ministry of Culture, and the versatile playwright, Han A-rum bring their distinctive brand of image activity theatre to LG Arts Center. Set in 1980s, this new creation tells the story of two different brothers engaged in cutthroat competition, and shows the picture of life in the 80s which was exhausting but rewarding.





“이것은 연극적 성취의 정점이며, 당신이 오래도록 소중한 보물로 간직할 경험이다.”

AGE. Australia 2007

Lev Dodin &  
The Maly Drama  
Theatre of  
St. Petersburg

# ‘Uncle Vanya’

© Viktor Vassiliev

세계 최고의 앙상블이 빛어낸 체흠의 정수

THEATRE

## 레프 도진 연출, 상트 페테르부르크 말리 극장 〈바냐 아저씨〉

5.5(Wed)  
~8(Sat)

Wed 6pm  
Thu & Fri 8pm  
Sat 4pm

R 70,000 won

S 50,000 won

A 30,000 won

\*

공연시간

3시간 / 휴식 1회 포함

Duration: 3hrs incl. 1 interval

\* 러시아어로 공연되며,  
한국어 자막이 제공됩니다.

레프 도진의 연극을 보는 관객들은 무장해제당하기 십상이다. 평가의 잣대를 모두 내려놓고 그가 준 생생하고 진실한 삶의 경험과 벅찬 감동을 마음 가득히 받아들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시대 연극이 존재해야 하는 진정한 이유를 깨닫게 해 주는 연출가, 세계가 사랑하는 연극의 거장 레프 도진. 그가 이끄는 상트 페테르부르크 말리극장이 2001년 〈가우데아무스〉와 2006년 〈형제자매들〉에 이어 다시 한국 관객들과 조우하는 작품은 안톤 체흠의 〈바냐 아저씨〉다.

레프 도진은 〈바냐 아저씨〉를 체흠 작품 중 가장 아름다운 ‘다이아몬드’(정수)로 꼽는다. 연출가가 고백하기를 ‘20년 동안 계속 생각해 왔으나 감히 손을 대지 못하였다가’ 2003년 드디어 무대화했다.

사랑과 상실, 인생의 무상함과 그럼에도 또 다시 견뎌내야 하는 삶. 도진은 그의 〈바냐 아저씨〉를 통해 우리 각자가 어떻게 그 순간들을 살아내는지 들여다 보게 해 줄 것이다.

The world leading director, Lev Dodin and his Maly Drama Theatre of St. Petersburg brings us *Uncle Vanya* by Anton Chekhov. Dodin had conceived his own interpretation of the play for 20 years, until 2003 when he finally mounted his version on stage.

He describes *Uncle Vanya* as the most beautiful crystalline of all Chekhov's plays.

He reveals in his production love, loss, vanity and life we still need to bear. Dodin will let us look into the moments in our own lives.



“훌륭한 작품을 선보이는 극단은 세상에 많다. 그러나 관객들로 하여금 - 아무리 험하고 환영 같을지라도 -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삶 자체를 믿도록 만들 수 있는 극단은 흔치 않다. 말리 극장은 바로 이것을 해내고 있다.”

Chicago Sun Times



# MATTHEW BOURNE'S SWAN LAKE



## Matthew Bourne's 'Swan Lake'

"〈백조의 호수〉가 지닌 매력은 사그라 들기는커녕 새로운 캐스트들과 함께 더욱 커지고 강해졌다."

The Guardian

5.12(Wed)  
~30(Sun)

Weekdays 8pm

Weekend 3pm & 7pm

R 120,000 won

S 100,000 won

A 80,000 won

B 60,000 won

\*

월요일 공연 없음

No performance on Mondays

단, 5.13(Thu) 3pm & 8pm /

5.21(Fri) 7pm

\*

공연시간

2시간 30분 / 휴식 1회 포함

Duration: 2hrs 30mins incl.

1 interval

\* LG아트센터 & SBS 공동 주최

아직도 보지 못했는가?

이번엔 기필코 놓치지 마라!

## 매튜 본의 댄스뮤지컬 〈백조의 호수〉

2003년 첫 내한한 이래 공연 시마다 전석을 매진시키며 2010년 네 번째 시즌으로 이어지는 매튜 본의 〈백조의 호수〉. 영국의 천재 안무가 매튜 본의 독창적인 상상력과 감각적인 안무로 차이코프스키의 고전 발레에서 현대의 관객들을 위한 댄스 뮤지컬로 거듭난 〈백조의 호수〉는 파격과 혁신으로 전세계 관객들을 강타하며 웨스트엔드와 브로드웨이 역사상 가장 흥행한 무용 작품으로 자리매김했다.

머나먼 동화 속 이야기만 같던 원작의 스토리를 폐기하고 현대 영국의 왕실로 배경을 옮겨 사랑을 갈구하는 유약한 왕자와, 그가 갖지 못한 강인한 힘과 아름다움, 자유를 표상하는 환상 속의 존재인 백조 사이에 펼쳐지는 가슴 아픈 심리 드라마로 탈바꿈된 〈백조의 호수〉는, 웅장하면서도 다채로운 차이코프스키의 음악에 신비로운 호수와 화려한 왕실 무도회, 런던 뒷골목의 자유분방한 바(bar) 등 왕자의 환상과 현실 속의 공간을 오가며 마치 영화를 보듯 흥미진진하고 긴장감 넘치는 이야기를 펼쳐낸다. 특히 섬세하고 가녀린 여성 백조 대신 깃털 바지에 근육질의 상체를 드러내고 백조로 분한 남성 무용수들의 관능적이고 역동적인 군무는 마치 백조가 커다란 날개를 펴고 위협을 하듯 강한 힘과 거친 카리스마를 발산해내며 치명적인 매력으로 관객들을 사로잡는다.

이번 내한공연에는 영국 노던 발레단 주역 출신의 발레리노 조나단 올리비에(Jonathan Ollivier)와 지난 2006년 공연된 매튜 본의 〈가위손〉에서 주역인 에드워드로 한국 관객들을 열광케 했던 샘 아처(Sam Archer)가 각각 백조와 왕자를 맡아 더욱 힘차게 날아오를 것이다.

1995년 초연된 이후 매 시즌마다 새로운 캐스트들과 함께 더욱 새롭게 강력하게 업그레이드되어 온 〈백조의 호수〉. 2010년을 맞는 지금 '왜 아직도'라고 묻는다면 '여전히 〈백조의 호수〉이기 때문에'라고 답할 것이다.

ENTERTAIN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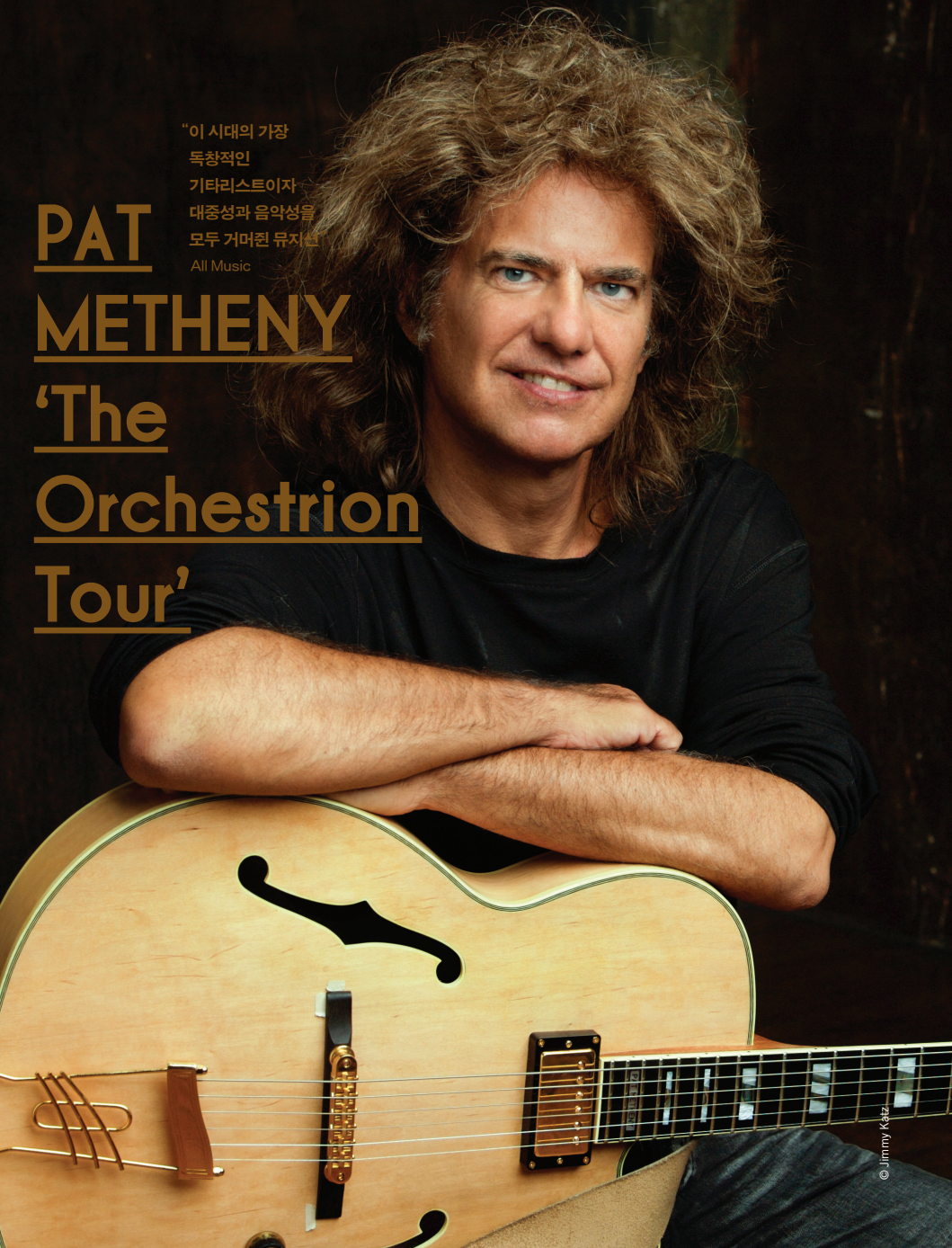
Matthew Bourne's hugely successful *Swan Lake* returns to Seoul to sell out the 4th Korea tour. Innovative and exciting, provocative and powerful, this multi-award winning production audaciously transforms one of ballet's best-loved stories into a startlingly contemporary tale. Featuring a cast of all muscular male dancers for the role of 'Swans', this witty and sexy version of *Swan Lake* thrills the audience with strength and charisma.



“이 시대의 가장  
독창적인  
기타리스트이자  
대중성과 음악성을  
모두 거머쥔 뮤지션”  
All Music

# PAT METHENY

## ‘The Orchestrion Tour’



© Jimmy Katz

6.2 (Wed)  
~ 5 (Sat)  
Weekdays 8pm  
Sat 7pm

- R 100,000 won
- S 80,000 won
- A 60,000 won
- B 40,000 won

테크놀로지로 펼쳐낸 사운드 스펙터클

## 팻 메시니 솔로 〈오케스트리온〉

지난 30여 년 간 폭넓은 음악적 상상력으로 자신만의 확고한 영역을 구축하며 시대를 대표하는 장인으로 인정받아 온 팻 메시니가 실로 놀라운 새 프로젝트로 다시 한국을 찾는다.

동료들과 함께 내한했던 지금까지와는 달리 팻 메시니 홀로 무대에 서는 솔로 프로젝트 ‘오케스트리온’ (Orchestrion). 오케스트리온이란 사람의 손길 없이 기계의 움직임으로만 연주되는 악기를 일컫는 표현으로, 팻 메시니는 1800년대에 시도되었던 오케스트리온 컨셉을 현대의 최첨단 기술과 접목하여 재창조해냈다. 무대는 각종 악기와 기계로 뿔뿔이 들어찰 것이고 무대에 오르는 사람은 오직 연주를 조율할 팻 메시니 단 한 명뿐, 모든 악기는 기계에 의해 자동으로 연주된다. 사람이 연주하기 힘든 음과 사람의 연주에서만 느낄 수 있는 따스함이 정밀하게 설계된 기계에 의해 동시에 구현되는 장관이 눈 앞에서 펼쳐질 것이다.

2010년 1월에 발매되는 새 앨범에 실릴 창작곡들을 연주하게 될 이번 내한 공연은 팻 메시니의 팬은 물론 음악 애호가들에게 신선한 음악적 충격을 안겨줄 것이다. 팻 메시니의 리드 아래 피아노, 드럼, 퍼커션, 비브라폰, 기타, 베이스, 오르간 등 다양한 악기가 기계에 의해 스스로 소리를 내는 진풍경을 놓치지 말자. 당신은 막이 오른 후에도 한동안 입을 다물 수 없을 것이다.

“오케스트리온은 새로운 음악 영역으로의  
도약을 위한 프로젝트다...  
수백 마디 설명보다 한번 직접 와서 보는 것이  
여러분의 모든 궁금증을 풀어줄 것이다”  
PAT METHENY

JAZZ & WORLD MUSIC

World renowned guitarist/composer Pat Metheny has won extraordinary 17 Grammy Awards and has been nominated 33 times in 12 different categories, which is more than any other performers' winnings in Grammy history. Aside from all the critical awards and accolades, Metheny's focus remains continually on the breakdown of barriers and the exploration of new musical ideas. This tour is no exception as Metheny moves from brilliant solo guitar improvisations to the unveiling of a totally new technology for the presentation of an acoustically driven 'solo ensemble' music he is dubbing Orchestrionics. The performance will feature music from the forthcoming CD with of all new original compositions, as well as some older tunes from the Metheny's songbooks.





“비범한 테크닉과 보기 드문 풍부한 표현력.  
에머슨은 매혹적인 음악에 신선한 통찰력을  
끌없이 불어넣는 힘을 가진 앙상블이다.  
그들을 반드시 들어라!(Do Hear Them!)”

Gramophone

# Emerson String Quartet

© Witch Lensers

6년 만에 만나는 현악4중주의 최고봉

## 에머슨 스트링 콰르텟

6.6(Sun)  
7pm

R 70,000 won

S 50,000 won

A 30,000 won

\*

### 프로그램

모차르트 현악4중주  
“불협화음”, 드보르작  
현악4중주 “아메리카”,  
쇼스타코비치 현악4중주  
제9번

\* 상기 프로그램은 연주자의  
사정에 따라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난 2004년 10년만의 내한에서 실내악 공연으로는 드물게 매진에 가까운 열광적인 호응을 얻었던 현악4중주의 최고봉 에머슨 스트링 콰르텟(Emerson String Quartet)이 6년만에 한국을 찾는다.

1976년 창단 이래, 단 한번도 멤버 교체 없이 30년이 넘도록 흠집을 데 없는 응집력과 앙상블을 보여주고 있는 에머슨 스트링 콰르텟은 여타 현악4중주단에게 모범답안과도 같은 존재다. 도이치 그라모폰(DG) 레이블의 간판 현악4중주단인 에머슨은 베토벤, 쇼스타코비치, 바르토크 등 핵심 현악4중주를 전공 녹음하면서 일찍이 어떤 현악4중주단도 해내지 못한 위업을 이뤘으며 평단과 관객으로부터 절대적인 찬사를 받았다. 현악4중주단 최초로 그래미상 “올해의 클래식 음반상” 2회 수상을 포함, 총 8회의 그래미상 수상, 3회의 그라모폰상, 실내악단 최초로 수상한 에버리 피셔상 등 화려한 수상경력을 자랑하는 에머슨 스트링 콰르텟은 현존 최정상의 현악4중주단으로 우뚝 서있다.

이번 내한에서도 에머슨은 격찬을 받은 바 있는 쇼스타코비치의 현악4중주 제9번을 비롯하여 주요 현악4중주 레퍼토리인 모차르트의 “불협화음”, 드보르작의 “아메리카”를 들려주며 언제나 젊은 에너지로 가득한 자신들의 진면목을 보여줄 것이다.



CLASSICAL MUSIC

Hailed as “one of America’s most impressive string quartets” by New York Times, Emerson String Quartet returns to Korea in six years bringing the string quartet’s staple repertoire such as Mozart’s *Dissonant*, Dvřorák’s *American* quartets. The Emerson stands alone in the history of string quartets with an unparalleled list of achievements over three decades; recording and performing cycles of the complete Beethoven, Bartók, and Shostakovich string quartets and winning 8 Grammy Awards, 3 Gramophone Awards and the coveted Avery Fisher Prize. Do not miss this opportunity to hear one of the greatest string quartets live!

“중부한 테크닉, 통찰력  
있는 음악, 응집력과  
집중력, 그리고  
개성만점이면서 언제나  
흥미로운 연주”

The New York Times





Hofesh Shechter  
Company  
from the UK

“그의 패기와 독창성 그리고 멋진 퍼포먼스에 A+를 선사한다.”  
The Telegraph

# ‘Political Mother’

Political Mother © Ben Rudick



Uprising © Andrew Lang

6.12(Sat)  
~13(Sun)  
4pm

R 70,000 won  
S 50,000 won  
A 30,000 won  
\*

공연시간  
1시간 / 휴식 없음  
Duration: 1hr with no interval

우리가 지금 현대 무용에 기대하는  
새로움의 모든 것

## 영국, 호페쉬 섹터 컴퍼니 (Political Mother)

지금 영국이 가장 열광하는 춤이 찾아온다. 2009년 초 영국 비평가 협회 선정 ‘최고의 현대 무용 안무상’을 수상하며 영국이 가장 기대하는 안무가로 떠오른 호페쉬 섹터. 한국에서도 인기를 모은 영국 드라마 시리즈 <스킨스(Skins)>의 감각적인 오프닝 안무를 통해 대중적으로도 널리 알려진 그는 아직 30대의 젊은 나이인 만큼 21세기 현대 무용계의 새로운 추진 에너지로 통한다. 예루살렘에서 태어나 이스라엘의 세계적인 무용단 바체바 댄스 컴퍼니에서 활약하며 오하드 나하린, 빔 반데키부스, 테로 사리넨 등 선배 안무가들의 다양한 영향 아래 역량을 키워온 호페쉬 섹터는 이후 영국을 중심으로 활동하며 세계를 무대로 무섭게 성장해가고 있다. 2004년 첫 안무작인 <Fragments>와 <Cult>로 관객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던 그는 연이어 발표한 안무작 두 개를 한데 묶은 <In your rooms / Uprising>, 단 하나의 작품으로 2007년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키며 불과 몇 개월 사이 영국의 소규모 무용 전용 공간인 플레이스 (300석)에서 시작해 퀸 엘리자베스 홀(900석)을 거쳐, 최고의 무용 공연장으로 손꼽히는 새들러스 웰스 극장(1,500석)에까지 진출하는 저력을 보였다. “밀레니엄 이후 영국에서 창작된 무용 중 가장 중요한 작품”이라는 극찬을 받으며 이후 2009년 재공연에 이르기까지 티켓이 완전매진되는 놀라운 사례를 남긴 호페쉬 섹터는 2010년 여세를 몰아 유럽 현대 무용의 메카인 파리의 떼아트르 드 라 빌(Theâtre de la Ville)에 선 뒤 대망의 아시아 투어에 나선다. 자신의 무용단을 이끌고 처음으로 내한하는 호페쉬 섹터는 10명의 무용수와 별도의 라이브 뮤지션으로 구성된 신작 <Political Mother>를 한국 관객들에게 야심차게 선보일 예정이다. 세련된 무대 구성과 감각적인 조명, 강렬한 록 음악의 사운드와 타악기의 비트 속에 때로는 동물처럼 거칠고, 때로는 불꽃처럼 뜨거우며, 때로는 현실처럼 냉혹하고 직설적인 몸짓들은 지켜보는 이의 가슴 속에 전율을 일으킬 것이다. 지금 새로운 춤에 목말라하고 있다면 호페쉬 섹터를 만나라!

### DANCE



“호페쉬 섹터, 그의 이름을 기억하라.”  
The New York Times

Hofesh Shechter, the winner of the British Critic's Circle National Dance Award for Best Modern Choreography in 2008 presents his highly anticipated new work *Political Mother*. With the opening dance sequence for hit TV series, *Skins* seen by millions of viewers and the worldwide success of *Uprising/In your rooms*, Shechter and his young and talented dance company exploded onto the international dance scene. *Political Mother* promises to draw Korean audiences into Shechter's world whose astonishing unisons, percussive grooves and a raw and honest physicality mark him as one of the most exciting artists to emerge in recent years.





Peter Brook &  
Théâtre des  
Bouffes du Nord  
**'11 and 12'**

©Pascal Victor, ArtComArt

6.17(Thu)  
~20(Sun)

Weekdays 8pm  
Sat 3pm & 7pm  
Sun 4pm

R 70,000 won

S 50,000 won

A 30,000 won

\*

공연시간

1시간 40분 / 휴식 없음

Duration: 1hr 40mins with no interval

\* 영어로 공연되며,

한국어 자막이 제공됩니다.

너무 오래 기다려왔다.  
이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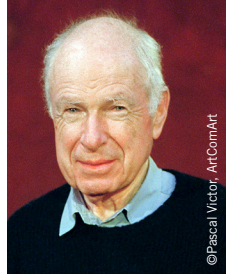
**피터 브룩 연출**  
**〈11 그리고 12〉**

세계 연극사를 논할 때 그 이름을 빼놓을 수 없는 우리 시대의 살아있는 신화, 피터 브룩의 작품이 드디어 한국에 온다.

지난 65년간 전 세계를 무대로 수많은 명작을 탄생시킨 피터 브룩은 영국 로열 셰익스피어 컴퍼니의 연출가로서 〈타이투스 앤드러니커스〉, 〈리어왕〉, 〈마라사드〉, 〈한여름밤의 꿈〉 등을 연출하며 국제적인 명성을 쌓아가던 1970년대 초반, 상업 연극과 제도권 연극을 탈피하여 진정한 연극성과 실험성에 바탕을 둔 작업을 하고자 돌연 프랑스 파리로 이주하면서 영국 연극계에 큰 충격을 안겨 주었다. 이후 파리에 국제연극연구소(CIRT)를 설립하고, 파리 북역에 위치한 뷔페 뒤 노르 극장(Théâtre des Bouffes du Nord)을 근거지로 다국적 배우들과 함께 문화와 민족을 넘어서 세계 연극사에 길이 남을 수많은 역할을 만들어 냈다. 특히 1985년 아비뇽 페스티벌의 일환으로 옛 채석장에서 공연한 인도의 대서사시이자 9시간의 대작 〈마하바라타〉는 “자언마저도 이전 피터 브룩의 연출아래 있는 듯 했다”라는 평을 들으며 그의 천재성을 다시 한번 전 세계 공연계에 알리기도 했다. 이번에 공연할 〈11 그리고 12〉는 아프리카 수피즘(이슬람 신비주의)의 지도자인 티에르노 보카(Tierno Bokar)의 생애로부터 영감을 받아 만든 작품으로 종교와 정치, 사상을 아우르는 티에르노 보카의 삶과 신념을 통해 인류사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분쟁과 폭력 그리고 인내에 관한 이야기를 8명의 다국적 배우들을 통해 전하는 작품이다.

여든 네 살의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여전히 정열적이고 명료한 연출로 세계 연극사의 신화를 계속 써 내려가고 있는, 명실공히 공연예술계의 살아있는 전설, 피터 브룩. 그의 첫 내한 공연은 그의 명성과 작품세계를 직접 확인하는 더없이 소중한 값진 기회가 될 것이다.

THEATRE



©Pascal Victor, ArtComArt

The legendary theatre director, Peter Brook's work is coming to Korea for the first time. He has directed over 70 productions from theatre and cinema to opera for last 65 years, as a director of Royal Shakespeare Company and the Bouffes du Nord Theatre in Paris. His new work *11 and 12* is developed from his 2004 production 'Tierno Bokar' which is a story about a great Sufi master in Africa, Tierno Bokar's struggle against hatred and violence. Peter Brook says that the production "is tragic and mercilessly comic, full of sharp insights into the struggles of the past which resonate ever more strongly today."

This will be a great chance to witness how a great theatre director has kept on writing his myth in the theatre history to the present time.

## LG아트센터 2010 CoMPAS 패키지

가장 좋은 자리에서 실속 있게 관람하십시오!  
 그 어떠한 곳에서도 모방할 수 없는 감동, LG아트센터에 있습니다.  
 2000년부터 선보인 LG아트센터의 특별한 패키지,  
 최고의 감동과 재미를 위한 차별화된 LG아트센터 기획공연  
 CoMPAS를 만나십시오!

**최고 35%, 최고 430,500원 할인 혜택!**

(자유패키지로 전 공연 최고 등급 구매 시)



패키지 티켓 오픈: **2009.12.15(화) 오전 9시**

### 패키지 종류

장르 매니아를 위한 최고의 선택	장르의 벽을 넘는다! 연극과 무용을 모두	2010년의 특별한 만남	원하는 작품을 원하는 만큼, 가장 큰 할인으로
<b>장르 패키지</b>	<b>더블 패키지</b>	<b>스페셜 패키지</b>	<b>자유 패키지</b>
연극 / 무용 / 클래식 / 재즈 & 월드뮤직	연극+무용	핫초코 패키지 영화 동시 관람 패키지	5개, 7개, 10개 이상

\* 매류 분의 (백조의 호수)는 모든 패키지에서 제외되며, 영화는 스페셜 패키지로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 패키지 이용방법

- 인터넷, 전화 및 방문 예매가 가능합니다.
- 구입하신 패키지의 해당 첫 공연 시작일부터는 취소 및 변경을 하실 수 없습니다.
- 모든 패키지는 동일 좌석등급으로만 선택 가능합니다.

(단, R석 패키지는 VIP석으로 상향 선택 가능합니다.)

### 문의 및 예매

- 홈페이지: [www.lgart.com](http://www.lgart.com)
- 매표소: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주말, 공휴일 휴무)
- Tel. 02-2005-0114 / Fax. 02-2005-1538

## LG Arts Center 2010 CoMPAS Packages

Become an LG Arts Center subscriber and enjoy exclusive benefits!  
 It's a great chance to save up to 35% to see the world's best performances.

**Package On Sale: at 9am on Tue, Dec 15, 2009~**

### GENRE PACKAGES

Theatre Package / Dance Package /  
 Classical Music Package / Jazz & World Music Package  
**R 25% / S 20% / A 20%**

### DOUBLE(THEATRE + DANCE) PACKAGE

Save up to 189,000won when choosing the top grade  
 for all 8 presentations of theatre & dance.  
**R 35% / S 30% / A 25%**

### SPECIAL PACKAGES

**HOT.CHO.KO Package**  
 (Hot Choice of Korean Artists)  
 Choose 3 new presentations by hot Korean artists  
 with a 30% discount and 1 coupon for hot chocolate.

**Film Package**  
 Choose both films 'In Search of Beethoven' +  
 'In Search of Mozart' for a 10% discount.

### FREE CHOICE PACKAGE

Make your own selections!  
 Save up to 430,500won when choosing the top  
 grade for all season programs.  
**35% DC for 10 or more**  
**25% DC for 7 or more**  
**15% DC for 5 or more**



### HOW TO PURCHASE

- Package tickets can be purchased by phone call, online or at the box office.
- Purchased package tickets cannot be refunded nor altered after the first performance in the packaged presentations.
- Matthew Bourne's 'Swan Lake' is not available for any packages.

### WHEN TO PURCHASE

- Free Choice Package: ~Feb 16, 2010
- Genre & Double Packages: ~until the day before the first performance in the packaged presentations.
- HOT.CHO.KO Package: ~Mar 9, 2010
- Film Package: ~Mar 26, 2010

### INQUIRY & BOOKING

- [www.lgart.com](http://www.lgart.com)
- Box Office. Weekdays 9am-6pm
- Tel. +82(2) 2005-0114  
 Fax. +82(2) 2005-1538  
 E-mail. [arts2005@lgart.com](mailto:arts2005@lgart.com)

## 장르 패키지

실속과 매니아를 위한 탁월한 선택



### 연극 패키지

예매기간: 2009.12.15(화) ~ 2010.4.1(목)

- 바츨라프 하벨의 <Leaving>
- 한아름 작, 서재형 연출 <토너먼트>
- 레프 도진 연출 <바나 아저씨>
- 피터 브룩 연출 <11 그리고 12>

R 25% 250,000 → 187,500 won  
 S 20% 190,000 → 152,000 won  
 A 20% 130,000 → 104,000 won

### 클래식 패키지

예매기간: 2009.12.15(화) ~ 2010.2.16(화)

- 베를린 고음악 아카데미 & 소프라노 서예리
- 크리스티안 테츨라프
- 알렉산드르 타로 & 장-기엔 케라스
- 에머슨 스트링 콰르텟

R 25% 290,000 → 217,500 won  
 S 20% 210,000 → 168,000 won  
 A 20% 130,000 → 104,000 won

### 무용 패키지

예매기간: 2009.12.15(화) ~ 2010.3.9(화)

- 정영두 <제7의 인간>
- 피나 바우쉬 <카페 밀라> & <봄의 제전>
- <Tune: 조율>
- 호페쉬 액터 컴퍼니 <Political Mother>

R 25% 290,000 → 217,500 won  
 (피나 바우쉬 공연 VIP 선택 시)  
 R 25% 270,000 → 202,500 won  
 S 20% 210,000 → 168,000 won  
 A 20% 160,000 → 128,000 won

### 재즈 & 월드뮤직 패키지

예매기간: 2009.12.15(화) ~ 2010.3.1(월)

- 웨인 쇼터 콰르텟
- 부에노스 아이레스 탱고 마에스트로
- 다이안 리브스
- 팻 메시니 솔로 <오케스트리온>

R 25% 400,000 → 300,000 won  
 (탱고 공연 VIP 선택 시)  
 R 25% 380,000 → 285,000 won  
 S 20% 300,000 → 240,000 won  
 A 20% 220,000 → 176,000 won

## 더블 패키지

장르의 벽을 넘나드는 감동 패키지

연극 + 무용

예매기간: 2009.12.15(화) ~ 2010.3.9(화)

R 35% 540,000 → 351,000 won  
 (피나 바우쉬 공연 VIP 선택 시)  
 R 35% 520,000 → 338,000 won  
 S 30% 400,000 → 280,000 won  
 A 25% 290,000 → 217,500 won

## 자유 패키지

원하는 공연만 쓱쓱 골라보는 즐거움,  
많이 볼수록 커지는 놀라운 할인 혜택!

예매기간: 2009.12.15(화) ~ 2010.2.16(화)

2010년 모든 기획공연을 대상으로 동일 좌석등급으로만  
 구매 가능하며, 동일 공연의 중복 선택은 불가능합니다.  
 단, R석 패키지는 VIP석으로 상향 선택 가능합니다.

10개 이상 선택 - 35% 할인  
 7개 이상 선택 - 25% 할인  
 5개 이상 선택 - 15% 할인

\* 매튜 본의 <백조의 호수>와 영화는 자유 패키지로  
 선택이 불가능합니다.

## 2010 스페셜 패키지

2010년의 더욱 특별한 만남

### 핫초코 패키지

(HOT CHOice of KOREAN artists)

예매기간: 2009.12.15(화) ~ 2010.3.9(화)

국내 아티스트들의 2010년 뜨거운 신작들을 모두 본대!  
 정영두 <제7의 인간>, 서재형 연출 <토너먼트>,  
 <Tune: 조율>(R석) 각각 1장씩 구매 시 30% 할인  
 \* 정영두 <제7의 인간> 티켓 수령 시  
 '핫초코 음료 교환권 1매'를 드립니다.

정영두 <제7의 인간> 40,000 + 서재형 연출 <토너먼트>  
 40,000 + <Tune: 조율> R석 60,000  
 총 140,000 → 98,000원 (42,000원 할인)

### 영화 동시 관람 패키지

예매기간: 2009.12.15(화) ~ 2010.3.26(금)

영화 2편 모두 관람 시 10% 할인  
 15,000 × 2편 = 30,000 → 27,000원





# LG아트센터 제휴 레스토랑 할인 안내

LG아트센터 당일 입장권 또는 예매확인서를 소지하시고 해당 레스토랑과 상점에 방문하시면, 다음과 같은 혜택을 드립니다. (타 쿠폰 및 할인 카드와 중복 사용 불가)

\* 이용하시려는 레스토랑의 영업시간을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KOREAN

사랑채(한식당)  
2005-1005~6  
주방장 특선 샐러드 제공  
(메인 메뉴 주문 시, 테이블 당 1개)

## ASIAN

강가(인도식 커리)  
2005-0610  
세트메뉴 10% 할인  
(티켓 1매 당 1세트)

실크 스파이스(오리엔탈 푸드)  
2005-1007~8  
소프트 드링크 or 허우스와인 1잔  
제공(메인 메뉴 주문 시)

케세이 호(중식당)  
2005-1003~4  
군만두 제공  
(메인 메뉴 주문 시, 테이블 당 1개)

## WESTERN / ITALIAN

더 레드 팻(퓨전 요리)  
557-3010  
새우 샐러드 제공 및 평일 10% 할인,  
토요일 20% 할인

매드 포 갈릭 강남점  
(이탈리안 와인 비스트로)  
562-6977  
시저 샐러드 제공

보나베띠 역삼점  
(이탈리안 레스토랑 & 와인 바)  
569-8253  
평일 10% 할인, 토요일 20% 할인

업타운다이너(아메리칸 카페)  
2005-1001~2  
케이준 샐러드 제공  
(메인 메뉴 주문 시, 테이블 당 1개)

## WINE / BEER

까브드뱅(와인 & 액세서리 매장)  
539-4942  
와인 20% 할인  
(그랑크뤼/행사 와인 제외)

헨터스 터번(라이브 뮤직 & 펍)  
2005-0700  
생맥주 500cc 제공(주중),  
뷔페 10% 할인(주말)

## DESSERT

세븐공키스 역삼점(커피전문점)  
2051-9674  
음료 size 무료 업그레이드  
(병 음료 제외)

# LG아트센터의 회원이 되십시오!

공연예술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께 열려 있습니다.

LG아트센터가 엄선한 세계의 다양한 공연 소식을 가장 먼저 접하실 수 있습니다.

가입비/연회비/예매 수수료가 없고, 본 만큼 혜택을 돌려받는 합리적인 회원제도!

## 가입 혜택

- 전화, 방문 또는 LG아트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편리하게 예매하실 수 있으며, 예매 수수료가 없습니다.
- LG아트센터의 공연 정보를 우편 또는 E-mail로 신속하게 제공해 드립니다.
- 사전 예매한 공연 내역은 관람 2-3일 전에 확인 E-mail을 보내드립니다.
- 기획공연 입장권 구매 시 구입가격의 5%에 해당하는 아트포인트를 적립해 드립니다. (10% 이상 할인 구매 시 적립불가)
- 아트포인트는 티켓 할인, 주차권 및 프로그램 교환 등 원하시는 서비스와 바꾸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www.lgart.com](http://www.lgart.com)에서 확인하십시오.

## 가입 방법

- LG아트센터 홈페이지 또는 전화(02-2005-0114)로 편리하게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 LG아트센터 오시는 길

### 지하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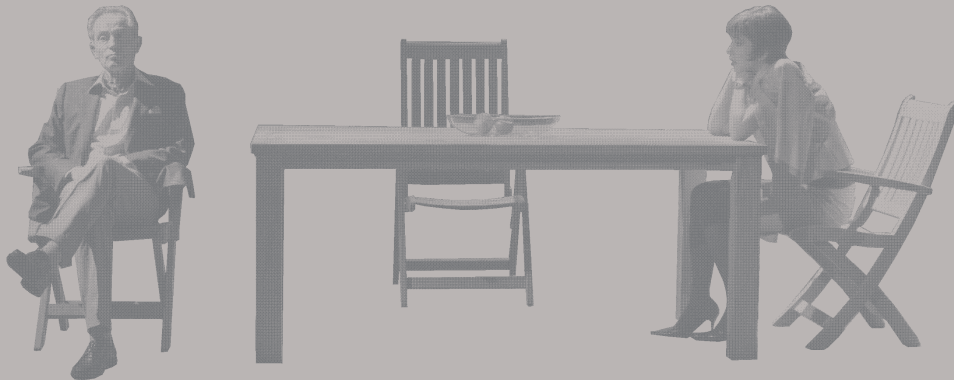
2호선 역삼역에서 하차 후 7번 출구로 나오시면 GS타워 지하 1층이 연결되어 있으며, 지하 1층에서 LG아트센터 전용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시면 됩니다.

### 버스

146, 147, 360, 730 - 역삼역 정류장 하차

### 주차

자가 차량 이용 시, 주차는 GS타워 지하주차장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공연을 보신 분에 한해 LG아트센터 메인 로비의 정산소에서 할인된 금액(3,000원)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0 Years  
LG Arts Center

## LG Arts Center 2000 - 2010

따스해진 햇살 속에 연초록 생명이 돌아나던

2000년 3월 LG아트센터의 개관과 함께

화창한 봄이 열렸습니다.

꽤 찬 열 해를 보내면서

어느덧 잎은 더욱 푸르러지고,

가지는 무성해졌습니다.

그동안 여러분이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을 새록새록 떠올리며

지금의 성장을 뿌듯해하기 보다는

앞으로의 새로운 비전을 품으려 합니다.

2010년 개관 열 돌을 맞이하는

LG아트센터의 기획공연이 CoMPAS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출발합니다.

설레임과 열정을 자양분 삼아

더욱 아름다운 꽃을 피우겠습니다.

At the dawn of the year 2010,

LG Arts Center is thrilled to celebrate our  
10-year milestone in performing arts.

New is the year,  
new are our visions and aspirations.

Launching CoMPAS, a new brand identity for  
our seasonal program,

LG Arts Center wishes you a great year  
full of happiness, joy and prosperity.



# LG아트센터 기획공연 2000~2009

## 2000

소프라노 조수미 리사이틀 3.28-30

Soprano Jo Su Mi Recital 'The Millennium Crossover'

부천 필하모닉과 강동석 3.29

Puchon Philharmonic Orchestra

피나 바우쉬 부퍼탈 탄츠테아터 (카네이션) 4.3-6

Pina Bausch Tanztheater Wuppertal 'Nelken(Carnations)'

'LG চেইম্বাৰ মুজিক ফেষ্টিভ' 보자르 트리오 4.10

LG Chamber Music Festival 2000 - Beaux Arts Trio

'LG চেইম্বাৰ মুজিক ফেষ্টিভ' 서울바로크합주단 4.11

LG Chamber Music Festival 2000 - Korean Chamber Orchestra

'LG চেইম্বাৰ মুজিক ফেষ্টিভ' 코리아 솔리스트 앙상블 4.12

LG Chamber Music Festival 2000 - Korean Soloists Ensemble

'LG চেইম্বাৰ মুজিক ফেষ্টিভ' 상하이 콰르텟 4.13

LG Chamber Music Festival 2000 - Shanghai Quartet

'LG চেইম্বাৰ মুজিক ফেষ্টিভ' 크로노스 콰르텟 4.14

LG Chamber Music Festival 2000 - Kronos Quartet

'LG চেইম্বাৰ মুজিক ফেষ্টিভ' 피날레 콘서트 4.15

LG Chamber Music Festival 2000 - Finale Concert

데레보 (Once...) 4.19-22

Derevo 'Once...'

4D ART (오르페오) 4.25-28

Lemieux & Pilon's 4D ART 'Orfeo'

<서커스 오즈> 5.3-8

'Circus Oz'

홍혜경, 제니퍼 라모 듀오 콘서트 "Romantic Variations"

5.13-15

Hei Kyung Hong & Jennifer Larmore Duo Concert

뮤지컬 (스모키 조스 카페) 5.18-31

Broadway Musical 'Smoky Joe's Cafe'

맥코이 타이너 트리오와 월드 재즈 올 스타즈 6.2-3

McCoy Tyner Trio & World Jazz All Stars

로열 셰익스피어 컴퍼니 (말괄량이 길들이기) 6.6-10

Royal Shakespeare Company 'The Taming of the Shrew'

장진의 <박수칠 때 떠나라> 6.16-30

Jang Jin 'Leave While They Are Still Applauding'

이윤택의 <도솔가> 7.7-22

Lee Youn Taek 'Dosolga' - Thus Spoke Zarathustra

브람스 페스티벌1. 낭만적 꿈과 사랑(협연. 최희연) 9.23

Brahms Festival 1 - Piano Choi Heeyoun

소프라노 캐슬린 배틀 리사이틀 11.16

Soprano Kathleen Battle Recital

브람스 페스티벌2. 영웅, 그리고 젊은 날의 열정

(협연. 게르하르트 오피츠) 11.18

Brahms Festival 2 - Piano Gerhard Oppitz

우리 시대의 무용가 12.14-15

Dancers, Best of the Best 2000

브람스 페스티벌3. 고독과 죽음에 대하여(협연. 지안 왕) 12.16

Brahms Festival 3 - Cello Jian Wang

## 2001

출추는 콘트라바스 2.2

L'Orchestre de Contrebasses

무지카 안티카 쾰른 2.3

Musica Antiqua Köln

부에나 비스타 소셜 클럽 2.5-6

Buena Vista Social Club

미하일 바리시니코프 & 화이트 오크 댄스 프로젝트 2.9-11

Mikhail Baryshnikov & White Oak Dance Project

'피아노 리사이틀 시리즈' - 엠마누엘 액스 2.17

Piano Recital Series 1 - Emanuel Ax

NHØP 트리오 2.18

NHØP Trio

'피아노 리사이틀 시리즈' - 장-이브 티보데 2.22

Piano Recital Series 2 - Jean-Yves Thibaudett



'피아노 리사이틀 시리즈' - 피터 야블론스키 3.17

Piano Recital Series 3 - Peter Jablonski

서울발레씨어터 (사계) 3.27-29

Seoul Ballet Theater 'Four Seasons' by James Jeon

데레보 (ONCE ...) 4.5-8

DEREVO 'Once...'

안은미의 <은하철도000> 4.12-15

Eun-me Ahn 'Galaxy Express 000'

리투아니아의 (가면 무도회) 4.26-28

'Masquerade' by Rimas Tuminas Vilnius Small Theatre

일본 그림자 인형극단 쓰노부에 5.1-12

Japan, Shadow Puppet Theatre TSUNOBUE

소프라노 바바라 헨드릭스 리사이틀 5.22

Soprano Barbara Hendricks Recital

보리스 에이프만 발레단 (차이코프스키), <레드 지젤>

<카라마조프의 형제들> 5.27-6.2

Eifman Ballet of St. Petersburg 'Tchaikovsky',

'Red Giselle' & 'The Karamazovs'

예핌 브론포만 피아노 리사이틀 6.8

Piano Recital Series 4 - Yefim Bronfman

홍승엽, 댄스씨어터 온 (빨간 부처) 6.15-16

Dance Theatre ON 'Red Buddha'

레프 도진, 상트 페테르부르크 말리 극장 (가우데아무스) 7.6-10

Lev Dodin, Maly Drama Theatre from St. Petersburg

'Gaudemus'

한국을 빛내는 해외무용스타 공연 7.14-15

The Korean World Dance Stars Festival

슬라바 폴루닌의 (스노우쇼) 7.18-29

Slava Polunin's 'SNOWSHOW'

뮤지컬 (지하철 1호선) 8.18-9.9

Rock Musical 'Line 1'

오마라 포르투ondo 내한공연 9.11-12

Omara Portuondo

이유라 바이올린 리사이틀 9.21

Yura Lee Violin Recital

베이스 바리톤 브린 터펠 리사이틀 10.11

Bass-Baritone Bryn Terfel Recital

## 2002

아프리카 댄스그룹 (검부츠) 8.14-18

African Dance Group 'Gunboots'

안톤 체흠의 (검은 수사) 8.30-9.5

Kama Ginkas 'Black Monk'

임동혁 초청 피아노 리사이틀 9.7

Lim Dong Hyek Piano Recital

팻 메시니 그룹 내한공연 9.11-15

PAT METHENY GROUP World Tour 'Speaking of Now'

레이첼 포저 바흐 무반주 바이올린 소나타 9.24

Rachel Podger Violin Solo Recital

오하드 나하린, 바체바 무용단의 (데카 당스) 9.27-29

Ohad Naharin, Batsheva Dance Company 'Deca Dance'

네크로슈스의 (오텔로) 10.3-6

Eimuntas Nekrošius, Meno Fortas 'Othello'

단테의 신곡 3부작 (지옥), <연옥/천국> 11.1-7

Thalia Theater *La Divina Commedia*

'Inferno', 'Purgatory & Paradise'

데니스 마추예프 피아노 리사이틀 11.12

Denis Matsuev Piano Recital

칼라 블레이 트리오 11.15

Carla Bley Trio

존 애버크롬비 트리오 11.23

John Abercrombie Trio

보리스 에이프만 발레단 (러시안 햄릿),

<카라마조프의 형제들>, <돈키호테> 12.3-8

Eifman Ballet of St. Petersburg 'Russian Haml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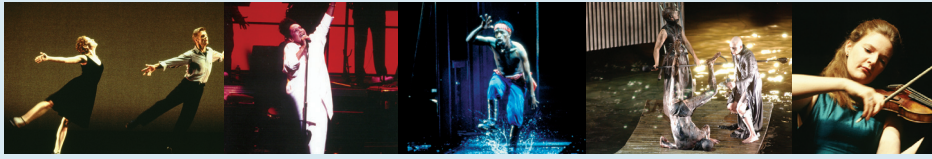
'The Karamazovs' & 'Don Quixote'

장진의 (웰컴 투 동막골) 12.14-29

Jang Jin 'Welcome to Dong-Mak Gol'

2002 제야 음악회 12.30-31

New Year's Eve Concert



## 2003

데레보의 <신곡> 2.5-9

DEREVO 'La Divina Commedia'

슬라바 폴루닌의 <스노우쇼> 2.12-23

Slava Polunin's 'SNOWSHOW'

디디 브리지워터 트리오 3.5

Dee Dee Bridgewater Trio 'Dear Ella'

베이스 연광철 리사이틀 3.9

Bass Youn Kwangchul Recital

로베르 르빠주 & 엑스 마키나 <달의 저 편> 3.13-15

Robert Lepage & EX Machina 'The Far Side of the Moon'

로메오 카스텔루치 <창세기> 3.21-22

Romeo Castellucci & Societas Raffaello Sanzio 'Genesis'

화음 체임버 오케스트라 "홀쭉" 3.24, 8.24, 10.8

Hwaum Chamber Orchestra 'Hwaum'

안은미의 <춘향> 3.28-30

Eun-me Ahn 'Chunhyang'

마츠 에크, 클베리 발레단 <백조의 호수> 4.3-5

Cullberg Ballet 'Swan Lake' by Mats Ek

피나 바우쉬 부퍼탈 탄츠테아터 <마주르카 포고> 4.25-28

Pina Bausch Tanztheater Wuppertal 'Masurka Fogo'

매튜 본의 <백조의 호수> 5.20-6.1

Matthew Bourne's 'Swan Lake'

홍승엽, 댄스씨어터 온 <두 개보다 많은 그림자> 6.6-7

Dance Theatre ON 'Shadows More than Two'

유니버설발레단 "네 가지 모던발레의 유혹" 8.28-31

Universal Ballet 'An Evening of Contemporary Ballet'

소프라노 루치아 알리베르티 리사이틀 9.23

Soprano Lucia Aliberti Recital

빔 반데키부스, 울티마 베즈 무용단 <블러쉬> 9.26-28

Ultima Vez 'Blush' by Wim Vandekeybus

존 윌리엄스 기타 리사이틀 10.7

John Williams Guitar Recital

필립 글라스 "Philip on Film" 10.14-15

Philip Glass, 'Philip on Film'

- KOYAANISQATSI & POWAQQATSI

미사의 파두 10.17

Misia sings Fado

백건우 프로코피예프 사이클 10.23&25

Paik Kunwoo 'Prokofiev Cycle'

빌 프리셀 트리오 내한공연 10.26

Bill Frisell Trio 2003 World Tour

## 2004

파비오 비온디 & 에우로파 갈란테 2.5

Fabio Biondi & Europa Galante

제인 버킨 "아라베스크" 2.7

Jane Birkin 'Arabesque'

슬라바 폴루닌의 <스노우쇼> 2.10-22

Slava Polunin's 'SNOWSHOW'

쎄 드 라베 무용단 <믿음> 3.11-13

'Belief(Foi)' by Les Ballets C. de la B.

극단 여행자의 <환(幻)> 3.19-26

'Hwan' by YO HANGZA Theatre Company

탄둔 "新 바흐 마태 수난곡 '워터패션'" 3.28

Tan Dun 'Water Passion after St. Matthew'

스티븐 이셀리스 첼로 리사이틀 3.29

Steven Isserlis Cello Recital

극단 인혁 <홍가에 별들여라> 4.3-11

'Kasin-Let the Sunshine at the Haunted House' by

INHYEOK

한국을 이끄는 4인의 안무가 4.16-17

The Four Leading Choreographers

4D ART <아니마> 4.22-25

Lemieux & Pilon's 4D ART 'Anima'

사샤 발츠 무용단 <육체> 4.29-5.2

'Bodies(Körper)' by Sasha Waltz



매튜 본의 <호두까기 인형!> 5.8-30

Matthew Bourne's 'Nutcracker!'

랄랄라 휴먼 스텝스 <아멜리아> 6.3-5

La La La Human Steps 'Amelia'

게리 버튼 "비르투오지" 6.6

Gary Burton & Makoto Ozone 'Virtuosi'

마이클 나이먼 밴드 "카메라를 든 사나이" 6.8-9

Michael Nyman Band 'Man with a Movie Camera'

카운트 베이스 오케스트라 6.24

Count Basie Orchestra

에머슨 스트링 콰르텟 6.25

Emerson String Quartet

디즈니의 브로드웨이 뮤지컬 <미녀와 야수> 8.8-12.31

Disney on Broadway 'Beauty and the Beast'

## 2005

존 맥러플린의 "리멤버 샷티" 2.1

John McLaughlin 'Remember Shakti'

안스네스와 노르웨이 체임버 오케스트라 2.20

Leif Ove Andsnes with Norwegian Chamber Orchestra

베이스 전승현 첫 리사이틀 3.17

Bass Attila Jun Recital

조르디 사발과 에스페리옹21 3.19

Jordi Savall with Hespèrion XXI

DV8 피지컬 씨어터 <Just for Show> 3.31-4.2

DV8 Physical Theatre 'Just for Show'

로스스 무용단 <Bitches Brew / Tacoma Narrows>

4.14-16

ROSAS 'Bitches Brew / Tacoma Narrows'

팻 메시너 그룹 2005 월드투어 "The Way Up" 4.26-30

PAT METHENY GROUP 2005 World Tour 'The Way Up'

O.K. 씨어터 <로미오와 줄리엣> 5.5-7

O.K.Theatre 'Romeo & Juliet'

매튜 본의 <백조의 호수> 5.10-29

Matthew Bourne's 'Swan Lake'

샤우뷔네, 토마스 오스터마이어의 <인형의 집-노라> 6.8-10

Schaubühne 'A Doll's House - Nora'

고란 브레고비치 웨딩 앤 퓨너럴 밴드 6.11

Goran Bregovic Wedding and Funeral Band

스티브 라이히 "Drumming" 6.14

Steve Reich 'Drumming'

피나 바우쉬 부퍼탈 탄츠테아터 <러프 컷> 6.22-26

Pina Bausch Tanztheater Wuppertal 'Rough Cut' World Premiere

## 2006

프로그레시브 록 그룹, PFM 5.9

Premiata Forneria Marconi

나윤선 퀸텟 5.14

Nah Youn-sun Quintet

레프 도진, 상트 페테르부르크 말리 극장 <형제자매들 2부작> 5.20-21

Maly Drama Theatre from St.Petersburg 'Brothers and Sisters'

보리스 에이프만 발레단 <돈 주앙과 몰리에르>, <차이코프스키>, <Who's who> 5.30-6.4

Eifman Ballet of St. Petersburg 'Don Juan & Moliere', 'Tchaikovsky' & 'Who's who'

홍승엽, 댄스씨어터 온 <아Q> 6.9-10

Dance Theatre ON 'Ah Q'

필립 헤레베헤 & 콜레지움 보칼레 겐트 6.11-12

Philippe Herreweghe leads Collegium Vocale Gent

존 윌리엄스 & 리처드 하비 듀오 콘서트 6.15

John Williams & Richard Harvey Duo Concert

마리 쉬나르 컴퍼니 <바디 리믹스> 6.23-24

Compagnie Marie Chouinard 'body\_rEMIX / gOLDBERG\_vARIATIONS'



**타카치 콰르텟** 6.25  
Takács Quartet

**매튜 본의 <가위손>** 7.19~30  
Matthew Bourne's 'Edward Scissorhands'

**슬라바 폴루닌의 <스노우쇼>** 8.15~27  
Slava Polunin's 'SNOWSHOW'

**고란 브레고비치 <해피 엔딩 카르멘>** 9.2  
Goran Bregovic's 'Karmen with a Happy End'

**한태숙의 <이아고와 오셀로>** 9.12~17  
Han Tae-sook 'Iago & Othello'

**마리자의 파두** 9.21  
Mariza

**아카펠라 그룹, 칸타빌레** 9.22  
A cappella group Cantabile

**하겐 콰르텟** 9.23  
Hagen Quartet

**오귀스탱 뒤메이 바이올린 리사이틀** 10.14  
Augustin Dumay Violin Recital

**카메라타 잘츠부르크** 10.24  
Camerata Salzburg

**브라질 그룹포 코르포 무웅단** 10.27~29  
Grupo Corpo from Brazil

**네크로슈스의 <햄릿>, <맥베드>** 11.1~5  
Eimuntas Nekrošius, Meno Fortas 'Hamlet', 'Macbeth'

## 2007

**유쑤두 & 수퍼 에뜨왈 밴드** 3.1  
Youssou N'dour & The Super Etoile De Dakar

**실비 길렘 & 아크람 칸 <신성한 괴물들>** 3.6~8  
Sylvie Guillem & Akram Khan 'Sacred Monsters'

**크로노스 콰르텟 "Sun Rings"** 3.27  
Kronos Quartet 'Sun Rings'

**소웨토 가스펠 콰이어** 3.28  
Soweto Gospel Choir

**안 라우어스, 니드 컴퍼니 <이사벨라의 방>** 3.30~4.1  
Jan Lauwers & Needcompany 'Isabella's Room'

**뉴 트롤즈** 4.4~5  
New Trolls

**트레버 피노크 & 유러피안 브란덴부르크 앙상블** 4.18  
Trevor Pinnock & European Brandenburg Ensemble

**박근형 연출 <-pillowman>** 5.1~20  
Martin McDonagh's 'The Pillowman' by Park Kun-hyung

**알랑 플라텔, 세 드 라베 무용단 <저녁기도>** 5.25~27  
Alain Platel & Les Ballets C. de la B. 'VSPRS'

**마리사 몬테** 6.1  
Marisa Monte Universo Particular World Tour

**나초 두아토와 토마스 판두르의 <날개>** 6.6~8  
Nacho Duato & Tomaz Pandur 'Alas'

**크리스티안 린드베리 & 노르딕 챔버 오케스트라** 6.19  
Christian Lindberg & Nordic Chamber Orchestra

**매튜 본의 <백조의 호수>** 7.4~22  
Matthew Bourne's 'Swan Lake'

**로이 하그로브 콰텟** 9.3  
Roy Hargrove Quintet

**로베르 르빠주 & 엑스 마키나 <안데르센 프로젝트>** 9.7~9  
Robert Lepage & Ex Machina 'Andersen Project'

**오하드 나하린, 바체바 무용단 <Three>** 10.24~25  
Ohad Naharin, BatSheva Dance Company 'Three'

**데이브 홀랜드 콰텟** 10.28  
Dave Holland Quintet

**데클란 도넬란 연출 <십이야>** 10.31~11.3  
Declan Donnellan 'Twelfth Night'

**양성원 <베토벤 첼로 소나타 전곡>** 11.4  
'Beethoven's Complete Sonatas for Cello & Piano'  
Sung-Won Yang & Pascal Devoyon

## 2008

**피나 바우쉬 부퍼탈 탄츠테아터 <네페스(숨)>** 3.13~16  
Pina Bausch Tanztheater Wuppertal 'Nefés(Breath)'



**리 브루어와 극단 마부 마인 <인형의 집>** 4.3~6  
'Mabou Mines DollHouse'

**안젤라 휴이트 "바흐 <평균율 클라비어 곡집 I & II>"** 4.11&13  
Angela Hewitt 'Bach <Well-Tempered Clavier Books I & II>'

**소프라노 유현아** 4.19  
Soprano Hyunah Yu Recital

**가나모리 조 & 노이즈8 <NINA>** 4.25~26  
Jo Kanamori & Noism 08 'NINA'

**케렌 앤** 5.8  
Keren Ann

**베스트루르포트 극단 <카프카의 <변신>>** 5.16~18  
Vesturport Theatre 'Kafka's <Metamorphosis>'

**소니 롤린스** 5.23&25  
Sonny Rollins

**홍승엽, 댄스씨어터 온 <뿔>** 5.30~31  
Dance Theatre ON 'Horn'

**피아니스트 스티븐 허프 리사이틀 "변주와 왈츠"** 6.1  
Stephen Hough Piano Recital 'Variations & Waltzes'

**앤드류 맨지 & 리처드 이가 듀오** 6.14  
Andrew Manze & Richard Egarr Duo

**에밀 쿠스트리차 & 노 스모킹 오케스트라** 6.24  
Emir Kusturica & The No Smoking Orchestra

**다이안 리브스** 9.25  
Dianne Reeves

**라데 에 미엘레** 10.7  
Latte e Miele

**빔 반데키부스와 울티마 베즈 무용단 <슈피겔(거울)>** 10.10~11  
Wim Vandekebus & Ultima Vez 'Spiegel(Mirror)'

**유니버설발레단 "모던발레 프로젝트"** 10.17~19  
Universal Ballet 'Modern Ballet Project'

**파비오 비온디 & 에우로파 갈란테** 11.2  
Fabio Biondi & Europa Galante

## 2009

**에스토니아 필하모닉 챔버 콰이어** 3.1  
Estonian Philharmonic Chamber Choir

**줄리엣 비노쉬와 아크람 칸 <in-i>** 3.19~21  
Juliette Binoche & Akram Khan 'in-i'

**보리스 에이프만 발레단 <안나 카레니나>** 3.27~29  
Eifman Ballet of St. Petersburg 'Anna Karenina'

**린헨 챔버 오케스트라 / 알렉산더 리브라이히 지휘** 3.31  
Münchener Kammerorchester / Alexander Liebreich  
conductor

**네크로슈스의 <파우스트>** 4.3~5  
Eimuntas Nekrošius, Meno Fortas 'Faust'

**엠마 커키비와 런던 바로크 "셰익스피어 인 러브"** 4.6  
Emma Kirkby & London Baroque 'Shakespeare in Love'

**조슈아 레드먼** 4.26  
Joshua Redman

**양정웅 & 극단 여행자 <페르귄트>** 5.9~16  
'Peer Gynt' by YOHANGZA Theatre Company

**레이디스미스 블랙 맘바조** 6.17  
Ladysmith Black Mambazo

**타카치 콰르텟 & 손얼음** 6.18  
Takács Quartet & Yeol-Eum Son

**안애순무용단 <불쌍>** 6.25~26  
Ahn Aesoon Dance Company 'Bul-ssang'

**프레저레이션홀 재즈 밴드** 9.1  
Preservation Hall Jazz Band

**유니버설발레단 <오네긴>** 9.11~20  
Universal Ballet 'Onegin'

**사샤 발츠 무용단 <게차이텐>** 9.25~26  
Sasha Waltz & Guests 'Gezeiten(Tides)'

**첼리스트 양성원의 "슈베르트"** 9.27  
Sung-Won Yang 'Schubert Project'

베를린 고음악 아카데미 & 소프라노 서예리  
Akademie für Alte Musik Berlin  
(featuring soprano Yeree Suh)  
2.17(Wed) 8pm  
R 80,000 / S 60,000 / A 40,000

크리스티안 테츨라프  
Christian Tetzlaff plays  
'J.S. Bach 6 Sonatas & Partitas'  
2.23(Tue) 7:30pm  
R 70,000 / S 50,000 / A 30,000

웨인 쇼터 콰르텟  
Wayne Shorter Quartet  
3.2(Tue) 8pm  
R 100,000 / S 80,000 / A 60,000 /  
B 40,000

정영두 <제7의 인간>  
'A Seventh Man' by Jung Young-Doo  
3.10(Wed)-11(Thu) 8pm  
전석 40,000

부에노스 아이레스 탱고 마에스트로  
Café de los Maestros  
3.12(Fri) 8pm  
VIP 120,000 / R 100,000 / S 80,000 /  
A 60,000 / B 40,000

피나 바우쉬 부퍼탈 탄츠테아터  
<카페 뮐러> & <봄의 제전>  
Tanztheater Wuppertal Pina Bausch  
'Café Müller' & 'Le Sacre du Printemps'  
3.18(Thu)-21(Sun)  
Weekdays 8pm / Weekend 4pm  
VIP 120,000 / R 100,000 / S 80,000 /  
A 60,000 / B 40,000

알렉상드르 타로 & 장-기엔 케라스  
Alexandre Tharaud & Jean-Guihen Queyras  
3.23(Tue) 8pm  
R 70,000 / S 50,000 / A 30,000

다이안 리브스  
Dianne Reeves  
3.26(Fri) 8pm  
R 80,000 / S 60,000 / A 40,000

영화 <베토벤을 찾아서 /  
<모차르트를 찾아서>  
'In Search of Beethoven' /  
'In Search of Mozart'  
directed by Phil Grabsky  
3.28(Sun) 1pm / 5pm  
전석 15,000

체코 아르하 극장,  
바츨라프 하벨의 <Leaving>  
Václav Havel & Archa Theatre from Prague  
'Leaving'  
4.2(Fri)-4(Sun) Fri 8pm / Weekend 4pm  
R 70,000 / S 50,000 / A 30,000

<Tune: 조율>  
'Tune' - Korean traditional &  
contemporary dance project  
4.9(Fri)-10(Sat) Fri 8pm / Sat 4pm  
R 60,000 / S 40,000 / A 30,000

한아름 작, 서재형 연출 <토너먼트>  
'A Tournament'  
by Seo Jae-Hyung & Han Arum  
4.20(Tue)-25(Sun)  
Weekdays 8pm / Weekend 3pm & 7pm  
전석 40,000

레프 도진 연출,  
상트 페테르부르크 말리 극장 <바나 아저씨>  
Lev Dodin & The Maly Drama Theatre of  
St. Petersburg 'Uncle Vanya'  
5.5(Wed)-8(Sat)  
Wed 6pm / Thu & Fri 8pm / Sat 4pm  
R 70,000 / S 50,000 / A 30,000

매튜 본의 댄스뮤지컬 <백조의 호수>  
Matthew Bourne's 'Swan Lake'  
5.12(Wed)-30(Sun)  
Weekdays 8pm /  
Weekend 3pm & 7pm  
\* 5.13(Thu) 3pm & 8pm /  
5.21(Fri) 7pm  
\* No show on Mondays  
R 120,000 / S 100,000 /  
A 80,000 / B 60,000

팻 메시니 슬로 <오케스트리온>  
PAT METHENY 'The Orchestron Tour'  
6.2(Wed)-5(Sat)  
Weekdays 8pm / Sat 7pm  
R 100,000 / S 80,000 / A 60,000  
/ B 40,000

에머슨 스트링 콰르텟  
Emerson String Quartet  
6.6(Sun) 7pm  
R 70,000 / S 50,000 / A 30,000

영국, 호페쉬 헥터 컴퍼니  
<Political Mother>  
Hofesh Shechter Company  
from the UK 'Political Mother'  
6.12(Sat)-13(Sun) 4pm  
R 70,000 / S 50,000 / A 30,000

피터 브룩 연출 <11 그리고 12>  
Peter Brook & Théâtre des Bouffes  
du Nord '11 and 12'  
6.17(Thu)-20(Sun)  
Weekdays 8pm / Sat 3pm & 7pm /  
Sun 4pm  
R 70,000 / S 50,000 / A 30,000

베를린 고음악 아카데미 & 소프라노 서예리  
Akademie für Alte Musik Berlin  
(featuring soprano Yereë Suh)  
2.17(Wed) 8pm  
R 80,000 / S 60,000 / A 40,000

크리스티안 테츨라프  
Christian Tetzlaff plays  
'J.S. Bach 6 Sonatas & Partitas'  
2.23(Tue) 7:30pm  
R 70,000 / S 50,000 / A 30,000

웨인 쇼터 콰르텟  
Wayne Shorter Quartet  
3.2(Tue) 8pm  
R 100,000 / S 80,000 / A 60,000 /  
B 40,000

정영두 (제7의 인간)  
'A Seventh Man' by Jung Young-Doo  
3.10(Wed)-11(Thu) 8pm  
전석 40,000

부에노스 아이레스 탱고 마에스트로  
Café de los Maestros  
3.12(Fri) 8pm  
VIP 120,000 / R 100,000 / S 80,000 /  
A 60,000 / B 40,000

피나 바우쉬 부피탈 탄츠테아터  
<카페 뮐러> & <봄의 제전>  
Tanztheater Wuppertal Pina Bausch  
'Café Müller' & 'Le Sacre du Printemps'  
3.18(Thu)-21(Sun)  
Weekdays 8pm / Weekend 4pm  
VIP 120,000 / R 100,000 / S 80,000 /  
A 60,000 / B 40,000

알렉상드르 타로 & 장-기옌 케라스  
Alexandre Tharaud & Jean-Guihen Queyras  
3.23(Tue) 8pm  
R 70,000 / S 50,000 / A 30,000

다이안 리브스  
Dianne Reeves  
3.26(Fri) 8pm  
R 80,000 / S 60,000 / A 40,000

영화 <베토벤을 찾아서> /  
<모차르트를 찾아서>  
'In Search of Beethoven' /  
'In Search of Mozart'  
directed by Phil Grabsky  
3.28(Sun) 1pm / 5pm  
전석 15,000

체코 아르하 극장,  
바츨라프 하벨의 <Leaving>  
Václav Havel & Archa Theatre from Prague  
'Leaving'  
4.2(Fri)-4(Sun) Fri 8pm / Weekend 4pm  
R 70,000 / S 50,000 / A 30,000

<Tune: 조율>  
'Tune' - Korean traditional &  
contemporary dance project  
4.9(Fri)-10(Sat) Fri 8pm / Sat 4pm  
R 60,000 / S 40,000 / A 30,000

한아름 작, 서재형 연출 <토너먼트>  
'A Tournament'  
by Seo Jae-Hyung & Han Arum  
4.20(Tue)-25(Sun)  
Weekdays 8pm / Weekend 3pm & 7pm  
전석 40,000

레프 도진 연출,  
상트 페테르부르크 말리 극장 <바냐 아저씨>  
Lev Dodin & The Maly Drama Theatre of  
St. Petersburg 'Uncle Vanya'  
5.5(Wed)-8(Sat)  
Wed 6pm / Thu & Fri 8pm / Sat 4pm  
R 70,000 / S 50,000 / A 30,000

매튜 본의 댄스뮤지컬 <백조의 호수>  
Matthew Bourne's 'Swan Lake'  
5.12(Wed)-30(Sun)  
Weekdays 8pm /  
Weekend 3pm & 7pm  
\* 5.13(Thu) 3pm & 8pm /  
5.21(Fri) 7pm  
\* No show on Mondays  
R 120,000 / S 100,000 /  
A 80,000 / B 60,000

팻 메서니 솔로 <오케스트리온>  
PAT METHENY 'The Orchestrion Tour'  
6.2(Wed)-5(Sat)  
Weekdays 8pm / Sat 7pm  
R 100,000 / S 80,000 / A 60,000  
/ B 40,000

에머슨 스트링 콰르텟  
Emerson String Quartet  
6.6(Sun) 7pm  
R 70,000 / S 50,000 / A 30,000

영국, 호페쉬 액터 컴퍼니  
<Political Mother>  
Hofesh Shechter Company  
from the UK 'Political Mother'  
6.12(Sat)-13(Sun) 4pm  
R 70,000 / S 50,000 / A 30,000

피터 브룩 연출 <11 그리고 12>  
Peter Brook & Théâtre des Bouffes  
du Nord '11 and 12'  
6.17(Thu)-20(Sun)  
Weekdays 8pm / Sat 3pm & 7pm /  
Sun 4pm  
R 70,000 / S 50,000 / A 30,000